백두-한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鲜人总联合会

주체112(2023) 11
http://www.paekdu-hanna.com

백두 - 한나

주체112(2023) NO.345



기업소개

SUCCCSS MERRY

선교편직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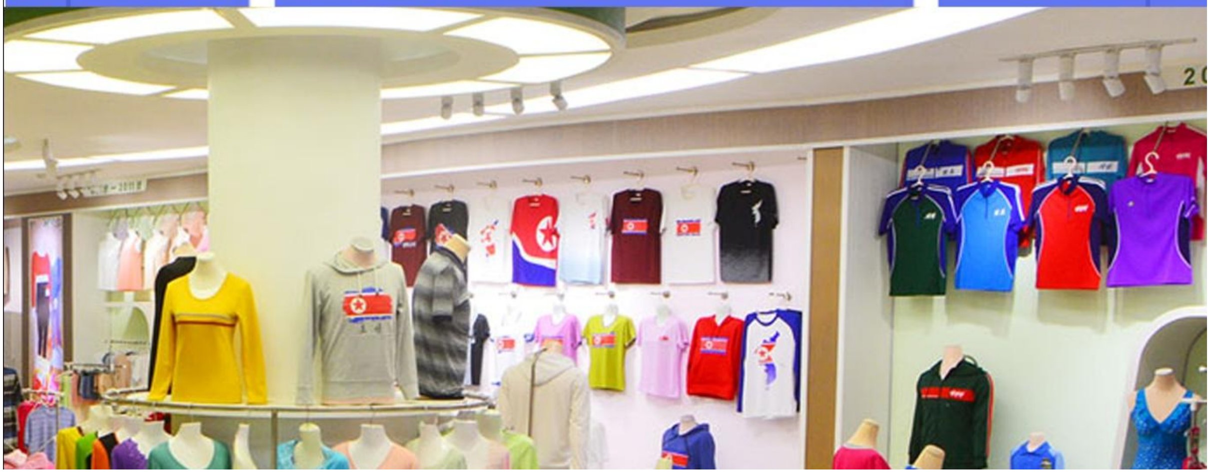
선교편직공장에서 생산되는 <<갈매기>>상표를 단 제품들이 형태와 색갈이 다양하고 질이 좋은것으로 하여 인민들속에서 인기를 받고있다.



공장에서는 옷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끊이없이 높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기호와 시대적미감에 맞는 다종다당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제품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련관단위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소형고온고압염색기를 제작하여 창의고안으로 염색의 질적수준을 높이고있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geminghuodongxiaoxi

01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02 정찰위성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연회 진행
0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04 어버이의 사랑속에 태여난 명절
05 애국과 과학
05 후대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06 인민들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07 부패무능한 괴뢰정부가 무너지는것은 시간문제이다
08 괴뢰통일부장관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인간쓰레기들의 미치광이짓이다
09 희세의 정신병자무리집단 괴뢰통일부
10 희세의 오물들
11 인간의 복과 사랑을 누리는 심양시공민 승복숙할머니
12 어머니날을 즐겁게 맞이하는 단동시공민들

조국소식
CHAOXIANXIAOXI

13 로동당의 은덕으로 원화벌에 차념치는 풍년의 기쁨
15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 검덕지구의 전변
16 태양의 품속에 영원할 어머니날
19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싸일 고체연료발동기시험 진행
20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 련일 성황리에 진행
22 새 농촌마을들에 수백동의 공동축사가 일떠선다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 10 차회의 진행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iiating

25 《민생파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초불로 탄핵하자!》
26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리
27 조선족 박세룡교수 북경대학 부교장으로
27 치치할시 조선족문화원, '나도 가수다' 노래자랑 한마당 축제 펼쳐
28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갖는 민생문제에 초점
31 이름은 화려하고 공연은 초라하고…
33 95 세 어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67 세 딸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36 중국대사관 성원들 조중친선택암농장과 동평양제 1 중학교 참관
36 조중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70 돐에 즈음한 연회 진행

중국소식
zhongguoxiaoxi

37 중미정상회담, 습근평 이런 관건적 문제 강조!
38 중국 남수북조 중선 프로젝트, 루적 물 공급량 600 억㎥ 넘어
40 발병률 상승, 우리 나라 당뇨병환자 1.4 억명 초과
41 중국외교부 7 개국집단의 내정간섭행위를 배격
41 좋은 소식! 41 가지 약품 가격 평균 58% 인하

국제소식
guojixiaoxi

상식
changshi

49 신문들 《을사 5 조약》을 위협공갈로 날조한 일제의 죄악을 폭로
49 《양산도》
51 매일 5 층 계단 오르면 심장병위험 20% 감소
53 자신이 고혈압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 5 가지 흔한 '고혈압신호'
54 비닐봉지에 포장한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55 11 월의 절기와 민속

백두 - 한나
PAEKDU-HANNA

앞표지:
평양의
가을거리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주체 112(2023) 년 11 월 21 일 22 시 42 분 28 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하여 발사후 705s 만인 22 시 54 분 13 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정찰위성발사는 자위권강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준동으로 나라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정찰위성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찰위성발사를 참관하시고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제고함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련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였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발사하여 남조선지역과 공화국무력의 작전상관심지역에 대한 정찰능력을 계속 확보해나갈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9 차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정찰위성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연회 진행



백전백승의 주체적혁명무력건설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이룩한 크나큰 자부심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시기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발사성공을 경축하여 11 월 23 일 저녁 목란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명의로 마련한 연회가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일군들과 과학자,기술자들이 주빈으로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녀사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격정으로 충만된 만세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정찰위성발사성공의 쾌거를 끝끝내 안아오시고 그 모든 영광을 우주과학전사들에게 돌려주시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신데 이어 한량없는 육친의 정과 하늘같은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와 외무상 최선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동지가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내각총리동지는 조선인민군이 운용할 첫 정찰위성발사를 기어이 성공시켜 우리 혁명무력에 우주정찰자산이라는 귀중하고도 위력한 보검을 선물하였으며 조선로동당의 주체적군사전략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진정어린 감사와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성공적으로 쏴올린 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하여 공화국무력의 군사활동행정에는 전혀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전지구권타격능력을 보유한 우리 군의 위력이 명실공히 세계최강급으로 장성강화되게 된데 대하여 총리동지는 언급하였다.

국익사수와 국권수호를 위한 창조전에 운명을 걸고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온 우주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의 헌신과 더불어 력력히 안겨오는 혁명의 전취물이며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조국의 전략적재부인 우리의 첫 정찰위성에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과 장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내각총리동지는 우리 당의 원대한 강군건설위업을 높이 받들고 정찰위성을 자기의 힘과 기술로 쏴올려 공화국의 존엄과 국위를 만방에 떨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공적은 청사에 길이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과 령도에 대한 절대충성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자력갱생과 우리식의 개발창조를 체질화한 미더운 과학자들의 투쟁성과에서 힘찬 고무와 참되고 열렬한 애국의 본보기를 받아안고 전국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전체 인민이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세게 가다듬을것이라고 하면서 총리동지는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들을 기어이 점령하여 조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해 계속 굴함없이 용감하게 분투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축원하면서 주체조선의 우주정복의 원대한 꿈을 줄기차게 실현해나갈 결의를 안고 축배를 들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의 최중대선결과업을 성과적으로 달성한 기세드높이 항공우주정찰능력의 급속한 강화발전과 우리 국가의 절대적힘을 천백배로 다지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해나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26일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함경남도 제55호선거구 제26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 꾸려진 선거장에 도착하시자 꿈결에도 뵙고싶던 우리 원수님을 뜻깊은 선거의 날에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게 된 룡성로동계급의 감격과 환희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로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거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선거장으로 향하시였다.

김덕훈동지, 리일환동지, 오수용동지, 김여정동지, 현송월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함경남도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철공장 지배인 김충혁동무와 함흥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 3기계직장 직장장 리철학동무, 함흥시 해안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해안구역통계부 부부장 림철동무에게 투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의원후보자들을 만나시고 이곳 로동계급과 함흥시인민들의 믿음을 항상 자각하고 높은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노력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며 인민의 권익과 요구를 옹호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룡성의 로동계급과 함흥시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선거에 참가한 무상의 영광을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의 혁명주권을 굳건히 다지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민적의무를 다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어버이의 사랑속에 태여난 명절

11 월 16 일은 온 나라 어머니들의 뜻깊은 명절인 어머니날이다.

어머니날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어머니들을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을 뜨겁게 전하고있다.

우리 나라 력사에 처음으로 어머니날이 제정된것은 주체 101(2012)년이였다.

어버이주석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한 경사로운 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주석님께서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하신 날인 11 월 16 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도록 하여주시고 첫 어머니날을 그 어느 명절 못지 않게 의의있게 경축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온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천만자식들의 기쁨속에 의의있게 맞이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이 나라 어머니들을 그토록 존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은정을 가슴에 새길수록 일군들의 눈앞에는 나라없던 그 세월 망국노의 설음과 봉건의 질곡속에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어데 하소연조차 할수 없었던 우리 녀성들에게 참다운 삶의 권리와 존엄을 안겨주시고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어려왔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해방후 주체 35(1946)년 7월 30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1차회의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였으며 주체 50(1961)년 11 월 16 일에는 전국어머니대회를 소집하시고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식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는 새 사회건설의 힘있는 창조자라는 높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주석님의 높은 뜻을 받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도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 키우도록 모성영웅제도를 새로 내올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제2차,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를 마련해주시여 평범한 어머니들을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불후의 고전적로작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를 발표하시여 온 나라 녀성들과 어머니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숭고한 뜻과 정을 그대로 간직하시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날 제정이라는 뜻깊은 조치를 취해주신것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속에 우리 어머니들의 존엄과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어머니들의 삶은 영광속에, 행복속에 더욱 빛나게 되였다.





애국과 과학

과학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마운 조국앞에 자기의 지혜와 탐구의 열정이 담긴 고귀한 창조물을 내놓고싶어하는 법이다.

과학자들의 이런 숭고한 사상감정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어느해 여름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급중학교시절의 동창생과 함께 연풍호를 찾으시였다.

흰갈기를 날리면서 언제에서 떨어져내리는 물줄기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우리 나라는 그 어디를 가보아도 인민의 락원으로 변모되고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땅의 어제와 오늘을 잘 모르고서는 참된 과학자가 될수 없다, 땅속에 묻혀있는 금은보화를 찾기 전에 산과 들, 강을 비롯한 조국땅 곳곳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부터 알아야 한다, 과학에 한생을 바치려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되기 전에 열렬한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과학자들이 탐구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어떤 자세와 립장부터 가져야 하는가를 밝혀주신 참으로 귀중한 지침이였다.

과학자가 되기 전에 열렬한 애국자가 되라.

진정 그것은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라나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여야 할 우리 과학자들의 영원한 삶의 좌표인것이다.

후대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창전거리에 새로 일떠선 경상유치원을 찾으신 그날 새하얀 위생복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채 병원놀이를 하고있는 꼬마의사에게 자신의 팔소매를 걷어올리시고 《진찰》을 받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소중히 새겨져있다.

청진기를 자신의 팔에 척 대보고나서 어디가 아픈가고 고개를 갸웃하며 묻는 꼬마의사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무럭무럭 자라는 자식들을 보며 온갖 시름을 다 잊군 하는 한가정의 아버지처럼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이 어찌 경상유치원에만 비껴있으랴.

아이들을 찾으시는 곳마다 두볼을 다독여주시며 아픈데는 없는가, 몇살인가 다정히 물으시는 그 음성이 하도 정깊어 어린이들 누구라없이 경애하는 그이를 만나뵈오면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원수님, 안아주세요.》라고 무랍없이 매여달리는 사랑과 인정의 감동깊은 세계.



인류사에는 아이들에 대한 위인들의 사랑이야기가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혁명의 본질도 목적도 후대들의 성장

과 행복에서 찾으시는 가장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사랑의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같으신분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정녕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어버이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여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인민들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 104(2015)년 10월 어느날 큰물피해를 가시고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당시)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에 도착하시여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다가 문득 라선시 책임일군들이 다 어디에 갔는가고 물으시였다.

당창건 일흔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침 렬차로 평양을 향해 출발하였다는 보고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이 도중역에서 내려 돌아오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당창건 일흔돐 경축행사에 좀 늦게 참가하더라도 인민들이 새집에 입사하는것을 봐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끝냈다는 보고를 받고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자신께서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것 같아 찾아왔다고, 오늘 여기로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새집들이 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이 본래집들보다 좋은가, 구들에 불이 잘 드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를 세심히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살림집들을 인민들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훌륭한 보금자리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하는 자기들에게 당에서 TV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선물로 보내준데 대하여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는데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살림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황홀하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인민들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바로 여기에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얼마나 세차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정녕 인민의 기쁨에서 혁명하는 멋도 보람도 찾으시고 생의 가장 큰 희열도 느끼시며 멸사복무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이 땅우에는 반드시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펴나는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부패무능한 괴뢰정부가 무너지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우리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남조선괴뢰통일부 수장자리에 올라앉은 김영호놈이 우리 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며 우리에 대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데 대하여 격분한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할수 없다.

김영호놈으로 말하면 괴뢰통일부 수장자리에 올라앉은지 두달밖에 안된놈인데 이 짧은기간에 "북자유주간행사"등 20 여차의 각종 반공화국모략광대극에 출연하였으며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진행된 "통일쎈터개관식"놀음에 낯짝을 내밀고 "북이 스스로 변화할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수 없다"느니 "통일론의확산을 위해 각지의 주요거점들에 통일쎈터를 설치하겠다"느니 하고 악청을 돋구며 돌아치고있다.

또한 몇이 안되는 인간쓰레기들을 몰고 다니며 "북현실에 대한 증언"이요 뭐요 하는 나발을 마구 불어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공공연히 벌리고있다.

또한 괴뢰통일부안에 "흡수통일"정책추진을 위한 "통일협력국"과 "대북심리전"을 전담하는 "통일인식확산팀"을 새로 조작하여 우리에 대한 대결광기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덤비던 그때의 광경을 방불케하고있으며 역시 윤석열의 졸개가 다를바 없다는것을 확연히 증명하고있다.

자기의 정확한 주견과 주대도 없이 미제의 식민지가 되여 그의 비위를 맞춰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제에 감히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이렇고저렇고 하는것은 정말 주제넘는 참견이라 해야 할것이며 온통 거짓으로 빚어진 괴뢰정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는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 대결광신자 윤석열의 환심을 얻어 제 밥줄을 잃지 않고 견지해보려고 해도마나한 짓을 일삼고다니는 김영호놈의 신세가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은 미제의 눈밖에 날가봐 두려워 있는거없는거 다 가져다 섬겨바치고 윤석열졸개들은 윤석열의 눈밖에 날가봐 정세긴장과 대결격화만을 부추기는 백해무익한 짓을 일삼는 괴뢰정부의 오늘의 현실은 앞으로의 희망과 기대라는것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부패무능한 괴뢰정부가 무너질 날은 시간문제라는것이 안봐도 뻔하게 안겨온다.

괴뢰정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간이 있으면 도탄에 빠지고 더욱 피페해진 괴뢰사회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바로 잡을가 머리를 써야 할것이며 점점 갈수록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는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전심을 다해야 할것이다.

김영호놈을 비롯한 한줌도 안되는 대결광신자들이 아무리 피대를 돋구며 우리 공화국을

헐뜯으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개짖는 소리만큼도 들리지 않으며 정세도 파악못하고 분수없이 놀아대면 댈수록 자기들의 머리에 불덩이가 떨어지는것이 시간문제라는것을 잊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우리가 권고하건데 온 겨레의 항의와 규탄을 외면한체 반인민적범죄를 저지르는 윤석열을 비롯한 그의 졸개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제스스로 제무덤을 파는 부질없는짓을 당장 걷어치우고 하루라도 빨리 제스스로 조용히 내려오는것만이 상책일것이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주체 112(2023)년 11월 3일

괴뢰통일부장관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인간쓰레기들의 미치광이짓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

윤석열괴뢰역적패당의 집안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괴뢰통일부장관 김영호놈이 특이한 정신병자처럼 놀아대고있다.

괴뢰통일부장관의 감투를 뒤집어쓰기전부터 민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던 이놈은 괴뢰통일부에 기여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반민족대결의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온갖 못된 짓이란 짓은 다 해대고있다.

지난시기 우리 공화국을 《타도》해야 하며 철저히《파괴》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던 이놈은 윤석열패당의 앞잡이가 되여 괴뢰통일부에 들어앉은 이후《북자유주간행사》등 각종 반공화국활동에 20여차례나 참가하여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 체제와 존엄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

또한 인간쓰레기들을 각지에 끌고다니면서 이른바《북현실에 대한 증언》놀음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반공화국모략단체들로《북인권민간단체협의회》라는것을 조직하는 등《북인권소동》에 앞장서왔다.

이놈은 기회만 있으면 그무슨《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립각한 통일》,《북변화를 통한 통일》따위를 운운하며《흡수통일》을 공공연히 웨쳐왔다.

이미 괴뢰통일부안에《흡수통일정책》추진을 위한《통일협력국》과《대북심리전》을 전담하는《통일인식확산팀》을 새로 조작한데 이어 계기때마다《북을 변화시키자면 외부세계의 정보와 문화를 북내부에 많이 류입, 확산시켜야 한다》고 대결적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얼마전에는 그 어떤 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압박분위기를 조성하려 혈안이 되여 날뛰였으며 걸음걸음 민족대결의 악담을 늘여놓았다.

이미 민족구성원이기를 그만두고 초보적인 인간적지성도 갖추지 못한 정신병자에게서 옳바른 행동이나 말을 기대하는것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놈의 이러한 히스테리적 동족대결발작증세로 애꿎은 사람들이 당하는 후과가 우려스러워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호랑이를 건드려서 좋은 일은 없다.

한번 치면 순간에 꺼꾸러질 좀팽이들이 하늘이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며 악담을 내뱉는것은 정말 좋지 않다.

다 망해가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집안에 기여들어가 할일도 없고 멋대가리도 없는 괴뢰통일부장관의 자리에 올라앉은것이 그 무슨 큰 벼슬이나 딴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김영호놈을 보느라면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쓰레기들의 대결적망발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발전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민족대참사를 불러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정신병자들이 많은 괴뢰내부에서 이러한 쓰레기들로 하여 또 어떤 재난과 화를 당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분명한것은 죄를 지은 놈은 정확히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김영호놈이 제아무리 반공화국대결의 앞장에서 그 무슨 개꿈을 꾸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미친 개짓을 부린다고 변화될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욱더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승승장구하며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이다.

만약 괴뢰쓰레기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뛸때는 우리 공화국은 용서없이 주저없이 깨끗하게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이 지구상에서 청소해버릴것이다.

괴뢰역적패당은 사태의 추이를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희세의 정신병자무리집단 괴뢰통일부

재중조선인녀성협회 회장 김영녀

사기협잡과 모략을 전업으로 하는 사악한 음모군들의 소굴인 괴뢰통일부것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이 갈수록 정신병적인 광기를 띠고 벌어지고있어 괴뢰지역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윤석열역도의 반공화국대결입김에 의해 괴뢰통일부에 밥줄을 들여놓은 김영호놈을 비롯한 역적무리들은 2 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벌써 수십여차에 걸쳐 우리를 반대하는 모략광대극들에 출연하여 우리 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가 하면 조국과 부모처자, 고향사람들을 서슴없이 배반하고 일신의 향락을 쫓아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을 귀물처럼 껴안고 각지에 끌고다니며 있지도 않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협잡증언놀음을 날에 날마다 벌려놓고있다.

더우기 역스러운것은 이 정신병자무리들이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어중이떠중이들을 찾아다니고 돌아와서는 제 집안에 끌어들여 어리석은 발버둥질, 비루한 구걸질로 안팎이 좁다하게 돌아치면서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떠벌이며 그 무슨 《담대한 구상》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악설과 궤변만 늘여놓고있는것이다.

오늘날 인간의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 인간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의 힘으로 국난을 헤치며 날로 비상히 강화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국력에 대하여서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물론 적대세력들까지도 공인하고 찬양하는것이 부정할래야 부정할수 없는 눈앞의 엄연한 현실이다.

반면에 력대 괴뢰보수패당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윤석열역도의 집권이후 괴뢰지역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더욱 급속히 전락되고있으며 인민들의 자주권은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혀 괴뢰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분노와 울분이 하늘에 닿고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보수집권 패당의 수족이 되여 낡아 빠진 인권타령에 매여달리면서 대결광기를 고취하는 희세의 대결광신병자무리들인 괴뢰통일부것들의 광태는 저들의 극악한 매국배족의 본색과 추악한 대결적 흉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반공화국대결을 업으로 삼아 반민족적인 《치적쌓기》에 광분하는 《대결부》, 쓰레기들을 그러안고 악취풍기는 험담질을 해대는 괴뢰통일부야 말로 한시바삐 들어내야할 쓰레기통이라는것을 다시하번 낱낱이 보여주었다.

괴뢰통일부의 역적무리들이 사실을 전도하며 현실외곡에 열을 올리여도 반공화국대결로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저들의 추악한 반역적정체와 악랄한 흉심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으며 한줌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의 더러운 입김으로 우리의 인권을 헐뜯고 악담질을 해대면 해댈수록 복수의 불벼락이 떨어질 날이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희세의 오물들

길림시지부 김련원

근간에 괴뢰통일부장관 자리를 차고앉은 김영호라는 또 다른 오물이 드러나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조상의 땅을 미제의 핵전쟁시험장으로 내여주고 일제의 핵페수를 샘물마냥 들이마시며 민족의 멸망을 추구하는 윤석열역도의 극악한 오물집단에서 새로 발굴된 이자도 오물통안의 밥줄을 이어가면서 닦지도 않은 구린 주둥이로 온갖 망발을 다 하고있습니다.

미국의 발바닥을 핥으며 우리 공화국의 인권문제며 공화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느니 하는 상전도 낯 뜨거워하는 온갖 잡소리들을 앞장서서 해대는 이 자야 말로 미쳐도 제대로 미친자라고 밖에 달리 볼수 없습니다.

현 세계정치무대를 둘러봐도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제국주의나라들의 패권주의에 맞서 민족이 단결하여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주권을 지키려는 나라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는데 오직 괴뢰들만은 더욱더 미제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동족상쟁, 민족분렬의 길로 달음치고있으니 이것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수가 있겠습니까.

외세에 굴복하고 외세를 섬기는것을 자기의 멋으로 여기면서 동족상쟁, 민족분렬을 골수에 박고있는 이런 매국역적 오물들은 날을 따라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만을 쌓아가고있습니다.

오물은 제때에 치워야 공기가 맑고 청결해집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대단결의 거세찬 함성으로 세상에 창피를 모르고 나대고있는 김영호를 비롯한 윤석열의 오물꾸레미들을 지구밖으로 쓸어버림으로써 민족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해야 할것입니다.

인간의 복과 사랑을 누리는 심양시공민 승봉숙할머니

심양지부일군들이 우리 공민 승봉숙할머니의 생신 105 돐 축하연회에 참가하였다.

12 일, 심양시에 자리잡고 있는 조국식당 평양관에서 심양시지부공민 승봉숙할머니의 생신 105 돐 축하연회가 열렸다.

이날, 평양관은 승봉숙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려고 온 손님들로 흥성거렸다.

승봉숙할머니의 딸 리준경공민과 그의 아들들이 심양시심연택지부장과 류창환부지부장과 총련합회 본부일군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사회자가 여러분들이 사업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승봉숙할머니의 생신 105 돐 경축연회에 참석하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경축과 손님들을 위하여 귀여운 소녀들의 노래와 춤을 펼치겠다고 말하자 어린 처녀애들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손에 부채와 꽃을 들고 흥겨운 <설눈아 내려라>의 선률에 맞추어 춤을 추니 손님들이 흥분하였다.

이어서 경축연회의 주인공인 105 세의 승봉숙할머니가가 손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연회장에 나왔다. 모두들 일어나 열렬한 박수로 할머니의 생신 105 돐을 축하하니 할머니도 웃으면서 손을 저어 인사하였다. 생일상을 차린 무대에 앉아 감사의 인사를 하는 할머니는 비록 행동은 불편하여도 정신상태는 괜찮았다.

사회자의 소개에 의하면 승봉숙할머니는 항일에 나선 남편을 찾아 어린 딸을 데리고 조선 정주에서 심양에 왔다고 하면서 풍상고초를 겪은 할머니의 장수비결은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책을 본다는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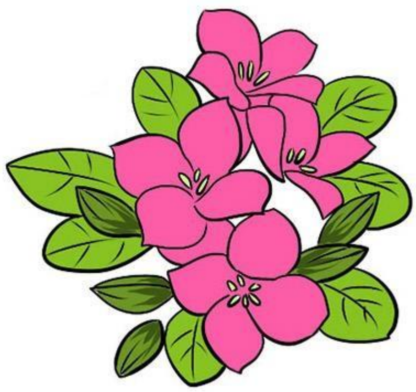
손자며느리들이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축하의 인사를 하면서 오래오래 앉으시여 생신 110 돐에 여러분들을 다시 이자리에 초대하련다고 인사하니 모두들 열렬한 박수로 화답하였다.

자식들을 어엿이 키우면서 심양시교육국에서 사업하다가 퇴직한 할머니의 딸 리준경선생이 오늘 경축연회에 참가한 손님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하였다. 조국지원사업에 언제나 앞장서는 리준경공민도 올해 80 세가 넘어 5 년전 승봉숙할머니의 생신 100 돐을 경축할때보다 몸이 좀 불편하였다. 오늘 경축연회를 그의 세아들과 며느리들이 책임지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어 손님들이 할머니에게 건강장수의 치하의 인사를 하였다. 심양시지부일군들과 본부일군들도 인사를 하고 꽃다발을 올린후 할머니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손자들이 할머니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오래오래 앉으세요>하면서 손님들에게 110 돐에 여러분들을 모시겠다고 하였다.

연회에서 손님들은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시간을 보내였다. 평양식당복무원들이 펼친 아름다운 춤과 노래 기악반주공연에 흥겨워서 손님들도 노래와 춤을 추며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심양지부일군들과 본부일군들도 손님들과 함께 어깨를 잡고 어울려 흥겨운 조국노래의선률에 맞추어 장내를 돌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승봉숙할머니의 건강장수를 축원하였다.





어머니날을 즐겁게 맞이하는 단동시공민들



뜻깊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단동시 주계숙지부장을 비롯한 단동시공민들이 16 일에 공민활동실에서 경축모임을 가지였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공민녀성들은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과도 같았다.

자식들을 잘 키우고 공민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단동시지부 녀성들의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애국으로 빛내여 가면서 자기명절을 경축하는 매개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참가자들은 조선기록영화《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시청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우리의 어머니들은 혁명의 년대들마다 가장 값높은 삶을 수놓을수 있다고 격찬하면서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시대적본분을 다해나가는 훌륭한 어머니로 투신하리라는 마음들을 다지였다.

청년사무장 리설희동무가 준비한 생일케이크, 차복신어머님의 딸 석정희동무가 후원한 꽃송이로 명절분위기는 흥미로웠다.

모임에 참가한 성원들은 존엄높은 삶을 누려가는 조선의 어머니들처럼 해외에서도 존엄높게 행복한 녀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표명하였다.



로동당의 은덕으로 원화벌에 차넘치는 풍년의 기쁨

평원군 원화농장에서 국가알곡생산계획 초과 완수, 결산분배 진행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행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전야마다에서 다수확의 자랑찬 소식이 련이어 전해지는 속에 평원군 원화농장에서 결산분배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명예농장원으로 높이 모신 원화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올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번째 고지로 내세운 당의 뜻을 실천적성과로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농사차비에 품을 들이였다.

농장에서는 당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알곡증산에 분발해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농업발전의 5대요소를 확고히 틀어쥐고 포전들에 많은 유기질거름을 실어내여 지력을 높이였으며 원그루큰모와 영양랭상모를 실하게 키우고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부단히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농장원들이 선진과학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농작물들의 생육상태를 제때에 파악하고 생산지휘의 정보화를 실현할수 있는 토대도 구축해놓았다.

지난 시기 물이 부족하여 밭으로 전환하였거나 습해를 받아 수확고가 낮았던 20여정보의 밭을 논으로 개간하고 수백m의 관개수로와 양수장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농사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영농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재해성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는데서 나서는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의 로고를 새겨안으며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포전마다에 애국의 구슬땀을 묻어 풍요한 작황을 마련하였다.

집단적혁신으로 가을걷이와 탈곡, 수매를 다그쳐 끝낸 농장에서는 국가알곡생산계획을 130.6%로 넘쳐 수행하고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아올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명예농장원으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주체 112(2023)년도 결산분배모임이 15일 원화농장에서 진행되였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주철규동지,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종혁동지, 평안남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최영송동지, 도당위원회 비서 김만조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해 분배몫을 정중히 드리였다.

농장경리 한송이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은정속에 원화리에 로동당시대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이 펼쳐지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행에 앞장섬으로써 쌀로써 당을 받들고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하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이어 농장벌이 들썩하게 흥겨운 농악무가 펼쳐진 분배장에는 오늘의 이 기쁨, 이 경사를 안겨준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끝없이 넘쳐흘렀다.

평원군 원화농장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알곡생산에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 영광의 대지에 세세년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옴으로써 고향땅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 검덕지구의 전변

단천시 돈산동과 금산동에 현대적인 살림집 건설, 새집들이 진행



검덕지구를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려는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이 가슴벅찬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굴지의 대규모광물생산기지에 또다시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단천시 돈산동과 금산동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설계된 1 400여세대의 단층, 소층, 다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솟아나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당중앙의 의도를 언제나 충직하게, 완벽하게 받들어가는 미더운 인민군군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광산도시건설에 애국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의 선경을 펼쳐놓았다.

룡양광산의 로동계급과 가족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될 희한한 살림집들이 새로 일떠서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게 된것은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열화같은 사랑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살림집입사모임들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영식동지, 단천지구광업총국, 룡양광산의 일군들, 로동자들, 돈산동과 금산동의 주민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몇해전 위험천만한 협곡철길로 검덕지구 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검덕지구를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광산의 전체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이 땅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숭고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자부심을 안고 살림집건설에 진입한 인민군장병들이 일정별, 공정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내밀고 부대별사회주의경쟁을 고조시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이 맡겨준 성스러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기쁨의 보고를 드리기 위해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광산도시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이 제시한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로동계급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국가에서 품을 들여 건설한 현대적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안은 광산의 로동자들과 가족들은 근로하는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안겨주시려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진정 우리 인민모두의 친어버이이시라고 격정을 터치였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광산도시가 들썩하게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집집마다에서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넘쳐났다.

새 보금자리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찾은 일군들이 감격에 겨워있는 집주인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태양의 품속에 영원할 어머니날

어머니날이 다가온다.

뜻깊은 이날 누구나 어머니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한다.

생을 준 어머니, 어릴 때에도, 다 자라서도 언제나 안기고싶은 따뜻한 그 품, 자식을 제일로 아끼며 희생적인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어머니, 인생의 첫 스승이자 영원한 스승인 어머니…

아들딸들의 뜨거운 정과 존경이 담긴 꽃다발을 받는 이날에 우리 조국의 어머니들역시 생각이 깊다.

이 세상 그 어디에나 어머니들은 있고 모성애가 없는 어머니들이란 없다.

꽃다발을 안겨주는 자식들이 고맙고 사회와 조국이 주는 축하와 축복이 뜨거울수록 우리 조국땅의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 녀성으로서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세워주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준 위대한 어머니,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품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신다.

돌이켜보면 망국노의 설음속에 눈물많았던 이 나라의 녀인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그때부터 운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였다.

잊을수 없는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와 더불어 우리 조국 녀성들은 수백년을 거쳐 자신들을 짓누르던 천대와 몽매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성장하였다.



위대한 주석님을 모시고 진행한 당세포총회에서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살수 있으니 너무 근심하지 마시라고 위대한 주석님께 큰 힘을 드린 신포향,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어찌고 떠들어도 이제는 다 잘살게 되였으니 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념려마십시오,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라고 신념의 말씀을 올린 태성할머니…

정녕 위대한 주석님의 품에서 형성되고 굳세여진 조선의 어머니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였다.

지금으로부터 62 년전인 주체 50(1961)년 11 월 16 일.

우리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전국어머니대회가 열리였던 그날 자녀교양과 사회주의건설에 몸바치고있는 여러 어머니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는 위대한 주석님의 다심한 음성이 울려퍼질 때 장내는 얼마나 격정으로 설레였던가.

그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에서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이라고, 어릴 때에 어머니한테서 배운 것은 일생동안 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제일 오래 기억하고있는것은 어머니가 해









준 말씀, 어머니의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훌륭한 교양자가 되라고 교시하시였다.

11 월 16 일.

진정 이날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어머니들을 력사와 인민앞에 떳떳이 내세워준 잊을수 없는 날이였다.

위대한 주석님의 그 사랑으로 온 나라 어머니들과 녀성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며 그들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빛내여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가슴 뜨거운 추억을 불러오는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리수복영웅의 집과 잇닿은 길어구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영웅의 자취를 더듬어보시는듯 그윽한 시선을 보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길은 참으로 뜻깊은 길이라고, 영웅의 어머니는 이길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것이라고, 그런데 오늘은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길을 걷는다고 하시면서 리수복영웅의 고향집에 들어서시였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수복영웅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대신 우리가 어머니의 곁에 있다고, 우리는 다 어머니의 아들딸들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것은 훌륭한 자식들을 키워 조국앞에 내세운 온 나라 어머니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사랑이였고 존경이였다.

고난의 시기와 새 세기의 진군길에서 제 2 차, 제 3 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열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범한 우리 어머니들을 온 나라가 다 아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어머니들로 내세워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처녀시절 자기가 섰던 초소에 자식을 세운 평범한 어머니의 소행을 대견하게 여기시여 그 가정을 혁명적군인가정으로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분도,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혁명의 만년재보

인 구호나무를 지켜낸 한 녀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어린 자식에게 어머니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서 억세여진 조국의 어머니들을 자랑한다.

절세위인의 다심한 손길이 있어 이 땅에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어머니의 대부대가 무성할수 있었으며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속에 어머니들은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 예술인, 체육인으로 보람찬 삶을 꽃피우고있다.

어머니.

한생을 보이지 않는 뿌리와도 같이 가정과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과 열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 조국땅의 수천만 어머니들의 삶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정히 받드시여 끝없는 사랑의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축복속에 더욱 빛나고있다.

위대한 주석님을 모시고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진행되였던 뜻깊은 날인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도록 하여주시고 이날에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열도록 은정어린 조치들도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회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시대적본분을 다해나가는 훌륭한 어머니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고무격려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넘친 음성은 오늘도 어머니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어머니날, 이날과 더불어 조국땅 모든 가정들에는 행복의 웃음이 더 활짝 꽃피고 우리 조국은 더더욱 젊음으로 약동하며 최후승리에로 향한 천만군민의 발걸음에는 더 큰 나래가 돋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믿음, 그 사랑에 떠받들리여 얼마나 많은 녀성들이 미덕의 선구자들로, 선군시대의 공로자들로 자라고있는것인가.

태양의 빛을 떠나 만물의 소생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듯이 우리 조국 녀성들의 값높은 삶도 위대한 어머니의 품,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떠나 말할수 없다.

참으로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삶을 빛내여가는 우리 어머니들과 녀성들은 행복하고 복받은 녀성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아들딸들을 훌륭히 키워내세우며 자기의 모범으로 자식들의 끊임없는 성장에 기여하고 나라일에 보탬주려는것이 어머니날에 더욱 뜨겁게 간직하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이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한목소리로 어머니라 부르는 위대한 태양의 품, 그 품이 있어 조선의 앞날은 창창한것이다.

뜻깊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삼가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노라.

어머니들이여, 미더운 자식들이 드리는 열렬한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시라!《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 /김철혁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싸일 고체연료발동기시험 진행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이 가속되고있는 시기에 미싸일공업부문은 또다시 중대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싸일용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는 변화되는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안전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전망적인 공화국국방력의 현대화계획을 심의하면서 2023년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계획중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과 함께 중거리탄도미싸일의 새로운 갱신을 미싸일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대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시험은 새로 개발한 중거리탄도미싸일용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들의 기술적특성들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1계단과 2계단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들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되였으며 이미 확보한 우리식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분야의 설계 및 제작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다시한번 뚜렷이 검증되였다.

시험을 통하여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싸일무기체계의 개발을 믿음직하게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이번 시험은 나라앞에 조성된 엄중하고 불안정한 안전환경과 적들의 군사적공모결탁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될 전망적인 지역의 군사정세에 대비하여 공화국무력의 전략적인 공격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공정으로 된다고 하면서 신형중거리탄도미싸일개발사업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서 여러가지 맛좋은 강냉이가공품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여있고 생산설비들을 정연하게 갖추어놓은 공장에서는 질좋은 강냉이가공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인민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가, 어떤 맛과 향기를 가진 식료품들을 좋아하는가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새제품개발에 지혜와 열정을 다바쳐가고있는것이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닌 기풍이고 일본새이다. 공장에서는 첨단분석설비들을 가지고 강냉이원료의수분측정과 농마함량, 회분함량 등 성분분석을 정확히 하여 제품의 실수률을 높이고 당분함량과 물기함량,산도 등 강냉이가공품들의질적지표를 엄격히 보장하고있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강냉이 가공품들을 생산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서

특히 옥쌀성형랭각체계를 확립하여 옥쌀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밥을 지은 후 쌀알의 형태가 변하는것을 막고 소화흡수률을 보다 높이였으며 구수한 맛과 고유한씹는 맛을 잘 배합시킬수 있게 강냉이단묵생산공정을 새롭게 일신시켰다. 공장에서는 새 제품들인강냉이칼국수와 강냉이강정, 강냉이차를 비롯하여 20여종에 50여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 강냉이미분가루로 생산한 강냉이찐빵과 구수한 강냉이과자, 독특한 맛을내는 강냉이단묵, 건강에 좋은 옥쌀기름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이 아주 좋다고 한다.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 련일 성황리에 진행

우리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열린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이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경공업제품전시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이번 전시회가 철저히 자기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조직사업을 적시적으로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매일 평균 1만명이상의 참관자들로 흥성이는 전시회장에서 다방면적인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날로 비약하는 우리 경공업의 발전면모를 체감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과 해당 전시품의 특성과 생산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봉사자들사이의 질의응답이 적극화되고있다.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발표회, 경험발표회, 과학기술추세강의에서는 앞선 경험과 새로운 기술이 적극 공유, 이전되고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와 그 실행방도에 대한 토론이 심화되고있다.

특색있는 봉사활동이 전개되고있는 가운데 삼일포특산물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들과 교원, 과학자들에게 친절하고 성의있는 우대봉사도 진행하고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감을 가슴뿌듯이 느끼며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할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철강재생산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토대 구축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중주파유도로들을 건설, 부분별시운전 진행

우리의 주체적힘을 비상히 증대시킬데 대한 당중앙의 의도를 받들고 온 한해 줄기차게 전진해온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얼마전 련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중주파유도로들의 건설을 끝내고 계통별시운전에 진입하였다.

련합기업소에 새로운 중주파유도로들이 일떠섬으로써 당의 의도대로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을 늘일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구축되였다.

나라의 강철기둥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 성과는 이곳 강철전사들이 당이 제시한 정비보강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린 과정에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제철, 제강, 압연공정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며 원료, 연료, 동력보장대책을 세워 철강재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새로운 중주파유도로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은 건축면적이 큰 여러동의 산업건물건설과 집채같은 설비 및 장치물들의 제작과 설치, 합리적인 동력계통구성을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방대한 과제였다.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은 철강재생산토대강화에서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저온삼화철로와 에네르기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를 비롯한 주체화대상공사를 추진하면서 능력이 큰 중주파유도로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였다.

능력있는 일군들로 공사지휘력량을 조직하고 돌격대원들과 오랜 기능공들로 강력한 시공력량을 꾸리였으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앞장에서 지펴올리였다.

새로운 혁신창조로 들끓는 현장들에 방송선전차와 기동예술선동대가 전개되여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적극 고무하였다.

김은건동무를 비롯하여 공사지휘를 맡은 일군들은 당결정관철에서 한치도 물러설수 없다는 투철한 관점을 지니고 대오의 앞장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힘차게 내달리였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이 해당 부문 연구사, 설계원들과 협동하여 새로운 중주파유도로건설을 위한 기술준비사업에서 크게 한몫하였다.

경제건설의 １２１１고지를 굳건히 지켜갈 일념 안고 기업소로동계급이 주체화대상공사에서 위훈을 떨치였다.

건설대보수사업소와 ４.１５기술혁신돌격대, 개건현대화돌격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 로동자들은 작업량이 방대한 산업건물들의 축조와 미장 및 지붕공사, 집채같은 설비 및 장치물들의 제작과 조립작업에서 련이은 혁신을 창조하였다.

공사기간 공무부문과 동력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투쟁열의도 높았다.

이들은 새로운 철생산공정을 하루빨리 일떠세워 주체철생산체계를 더욱 강화할 애국의 열정을 안고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며 모든 공정의 생산준비를 빠른 시일안에 결속하였다.

지난 １０월까지 변압기실과 조종실건설, 로체설치를 위한 습식공사와 함께 유도로본체, 천정기중기를 비롯한 수백ｔ의 강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조립을 끝낸 련합기업소에서는 새로 확립한 공정들을 정상운영할수 있는 동력계통도 성과적으로 완비하고 부분별시운전을 진행하고있다.

또 하나의 주체화된 철강재생산토대를 마련한 결과 련합기업소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철강재생산을 보다 늘일수 있게 되였다.

새 농촌마을들에 수백동의 공동축사가 일떠선다

평안북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에 맞게 새 농촌마을들에 공동축사를 번듯하게 지어주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 월과 10 월 태천군 룡흥농장마을과 선천군 건봉농장마에 공동축사가 전국의 본보기로 일떠선데 이어 지금 도적으로 수백동에 달하는 공동축사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에 보금자리를 편 농업근로자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려보시고 공동축사를 규모있게 지어주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하고있다.

공동축사건설이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어머니당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모든 지역의 일군들이 심장깊이 새겨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는 한편 자재보장을 따라세워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특히 공동축사의 위치확정과 설계를 앞세우면서 시, 군별경쟁열의를 고조시키고있다.

태천군과 선천군에서는 룡흥농장마을, 건봉농장마을의 공동축사건설을 와닥닥 다그쳐 끝내기 위해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고 지방자재를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공동축사를 남먼저 일떠세웠다.

삭주군에서도 공동축사건설을 적극 내밀어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앞선 단위들의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도적으로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운산군과 대관군, 구장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도 공사가 활력있게 추진되여 완공의 날을 가까이하고있다.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현대적인 농촌살림집에 이어 공동축사까지 곳곳에 일떠서는 가슴벅찬 현실을 목격하면서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어머니당의 다심한 사랑에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보답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도안의 새 농촌마을들에서의 공동축사건설은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평양제약공장 준공식 진행

인민보건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우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평양제약공장이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모든 생산공정과 환경이 국제적기준에 부합된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약품생산기지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더 뜨겁게 받아안을수 있게 되였다.

평양제약공장 준공식이 ２１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동지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 보건상 최경철동지, 국가과학원 원장 김승진동지, 관계부문, 공장의 일군, 종업원들, 건설자들, 공장개건현대화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등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내각부총리 전승국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평양제약공장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은정에 떠받들려 솟아난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기념비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１０７(２０１８)년 1월 ２４일 한겨울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시여 공장을 우리 나라 제약공업의 중심, 본보기로 꾸릴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속에서도 공장의 개건현대화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며 세심히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일군들과 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찬 투쟁속에 평양제약공장이 훌륭히 개건되게 되였으며 지난 시기에 비해 몇배나 더 많은 질좋고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인민들의 무병무탈과 부럼없는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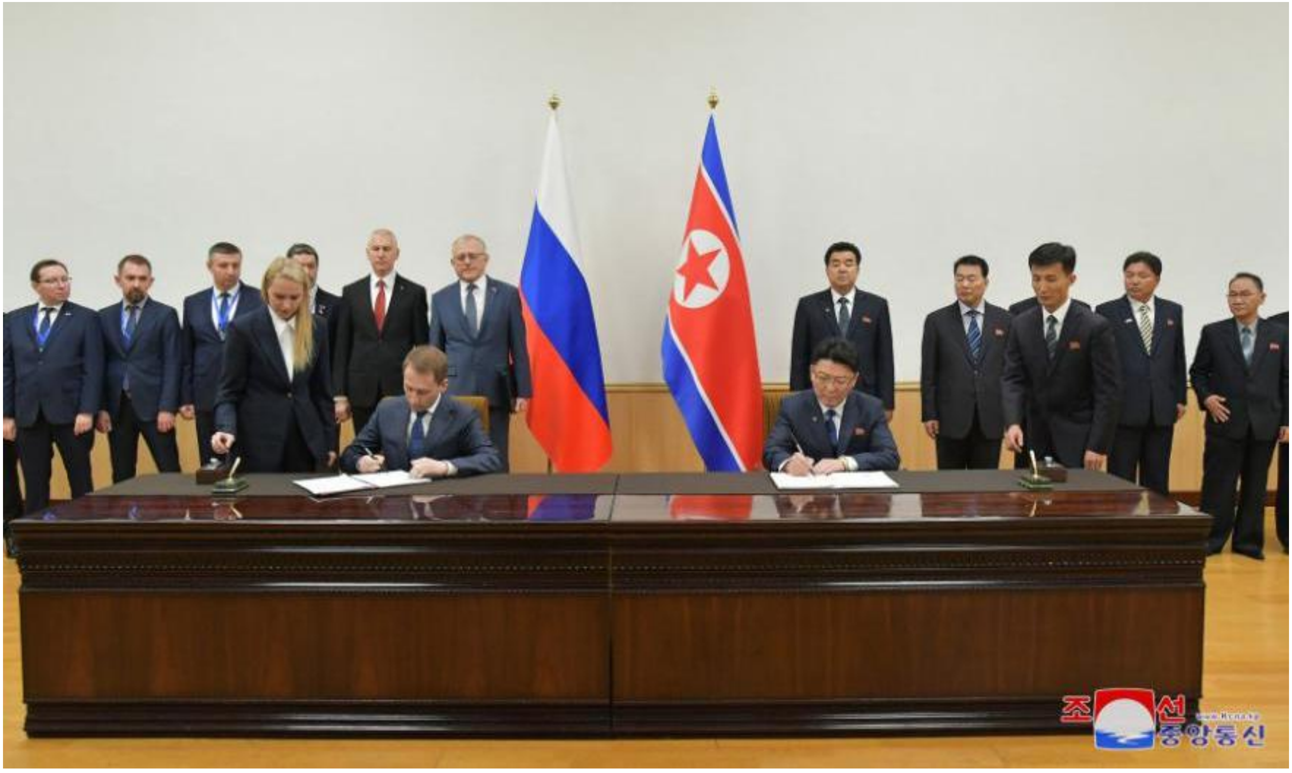
공장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사명감을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적성과로 높이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약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의약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건설자들은 우리 당의 부흥강국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나가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 10 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 10 차회의가 15 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로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우리측위원장인 대외경제상 윤정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조로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위원장인 자연부원생태학상 알렉싼드르 꼬즐로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정부대표단 성원들,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2023 년 9 월에 진행된 조로수뇌분들의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무역,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쌍무교류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확정되였다.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 10 차회의 의정서가 조인되였다.(끝)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jiating

《민생파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초불로 탄핵하자!》

윤석열역도를 퇴진시키기위한 괴뢰지역의 각계층 투쟁이 날로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다.얼마전 서울에서는 윤석열역도퇴진을 위한 제 63 차 초불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였다.

로동자, 농민, 빈민, 대학생, 종교인 등 수만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는 《탄핵으로 싸우자!》라는 주제로 열리였다.《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 《초불이 이긴다!》,《탄핵이 평화다!》 등의 대형프랑카드와 선전물들을 든집회참가자들은《기만적인민생행보 윤석열을 몰아내자》,《친일매국노 윤석열탄핵》의 구호를 웨치며 역도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였다.

집회에서 한 연설자는 사대에 환장한 윤석열역도의 반역적망동으로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윤석열탄핵을 통해 미일과의 모든 합의를 무효로 만들고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다른 발언자는 이제 탄핵의 활시위는 당겨졌다,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깡패에게는 초불이 약이다,초불로 탄핵하자,

기다리지말고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을때려치우라!》고 웨쳤다.집회참가자들은 《핵오염수투기공범 윤석열을 탄핵하라!》, 《도로조작 국정롱단윤석열을 탄핵하라!》,《강제징용판결부정 윤석열을 탄핵하라!》,《평화파괴 전쟁선동 윤석열을 탄핵하라!》,《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향해 시위를 단행하였다.

한편 광주에서도 윤석열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였다.《광주전남초불행동》의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의 굴욕외교로 하여 민생이 파탄되고 조선반도에 전쟁위기가 조성되였다고강력히 규탄하였다.또한 참사만 빚어내는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모두가 초불을 들고 윤석열탄핵운동에 떨쳐나설것을호소하였다.

한편 11 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시민단체들과 로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층이참가하는 《윤석열퇴진 디딤돌 놓는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전민중적인 총궐기만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자기만이 아닌 각계층의 일치한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리

재일동포사회에는 《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극단이 있다. 2004년에 무어진 이 극단은 지금껏 일본각지의 동포사회에서 많은 공연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9월에는 고찌현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주제로 한 극작품을 펼쳐놓아 파문을 일으켰다. 얼마전에는 이역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를 악물고 조국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며 애국의 신념을 변치 않고 살아온 동포들의 생활을 담은 작품을 에히메현에서 펼쳐놓았다. 한 1세동포로인의 체험담에 기초한것이라고 한다.

공연을 본 총련 시고꾸조선초중급학교 학생들은 모진 풍파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애국위업과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1세동포들의 모범을 본받아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졸업생들의 격정의 웨침

총련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는 그리 크지 않은 학교이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모범학교, 학생들의 도덕품행이 바른 학교로 자랑떨치고있다.

이곳 동포들은 정다운 모교를 위해, 자식들을 훌륭한 민족의 아들딸들로 키워주는 학교를 위해 지성을 기울이고있다. 학교창립기념일때면 여러 분야에서 높은 실력과 애국심으로 애국위업에 이바지하고있는 졸업생들이 모두 달려온다. 행사장은 민족교육의 화원을 세세년년 아름답게 가꾸어갈 그들의 드높은 애국열의로 끓어번지군 한다. 얼마전에 진행된 학교창립 70돐 기념행사도 그러했다. 현재 총련 금강산가극단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졸업생들의 독창, 독무도 훌륭했지만 학교음악소조출신 졸업생들의 중창은 더욱 이채로왔다. 30명이 출연한 합창《그리운 곳이 학교랍니다》도 교직원, 학생들의 절찬을 받았다.

졸업생들은 격조높이 웨치였다. 우리 총련과 사랑하는 모교를 변함없이 지키고 빛내여나가겠다고.

재능의 꽃을 활짝 피우며

얼마전 제32차 재일조선학생중앙피아노경연대회가 진행되였다. 예비경연에서 통과된 30여명의 학생들이 본선경연에 참가하여 지정곡과 자유곡을 연주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풍부한 표현력으로 연주를 잘하여 심사원들을 경탄시키였다. 총련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의 한 학생이 자유곡으로 《군밤타령》을 연주한 후 경연장에서는 피아노로 민요를 이렇게까지 경쾌하게 형상할수 있는가 하는 탄성이 울려나왔다.

관객들의 절찬을 자아낸것은 피아노련탄이였다. 출연자들은 자기 학교 학생들속에서 즐겨 불리워지는 곡들을 피아노로 훌륭히 연주하였다. 련탄부문에서는 총련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어머니조국의 사랑이 어려있는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이역의 학생소년들은 이처럼 재능의 꽃을 활짝 피우고있다.

민족문화를 꽃피워가는 재일동포들



조선족 박세룡교수 북경대학 부교장으로



최근 북경대학 홈페이지의 '현임 지도부'코너가 업데이트 된후 북경대학 지도부에 많은 조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강국화가 북경대학 당위부서기로, 방방과 박세룡이 북경대학 부교장으로, 임우중은 북경대학 당위위원을 담임한다고 밝혔다.

박세룡은 1976 년 4 월 연길시 조양천진 태생으로 1995~2004 년 북경대학에서 리학 학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 년 프랑스에 가서 박사 후 연구에 종사했고 2007 년 북경대학 도시환경학원으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쳤다. 주로 자연지리학 분야의 륙상 생태계와 기후 변화의 상호 공급 관계에 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국 륙상 생태계의 탄소 흡수 기능과 기후 변화에 대한 륙상 생태계의 반응 및 피드백 측면에서 체계적인 혁신 결과를 얻었다.

2021 년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 추가 선정에서 당시 45 세의 북경대학 박세룡교수는 최년소 신임원사로 되였다. 출처: 북경대학 홈페이지



치치할시 조선족문화원, '나도 가수다' 노래자랑 한마당 축제 펼쳐

치치할시 조선족문화원에서 주최하고 문화원과 치치할시 로인협회에서 공동 주관한 '나도 가수다' 조선족 노래자랑 한마당 축제가 2023 년 11 월 7 일 오전 억주각주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였다.치치할시 제 5 회 '아리랑'민속문화축제 계렬활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축제는 조선족문화활동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우의 증진, '노래 교실' 교수내용의 다양화 및 노래실력 제고 검증을 취지로 체험의 현장을 마련하였는데 기대의 효과를 엄청 뛰여넘어 조직측은 물론 전체 참여자들의 한결 같은 절찬을 받았다. 참여 의식을 증진하고 대중성적인 오락을 위하여 평심원들의 평판이나 점수로 등수나 순위를 가르는 재래식의 방식에서 벗어나 무릇 참석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출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을 뿐아니라 출연방식도 제나름대로 선택하고 노래 선택도 민족음악을 위주로 세계 각국의 명곡이나 민요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축제의 분위기는 시종 환락과 격정의 물결로 설레이게 하였다. 출연자나 관중의 교감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출연자나 관중의 신분이 없이 누구나 진정 '나도 가수다'라는 체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원 수석부원장 리금숙씨(71 세)에 따르면 이번 축제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고향을 찾아 온 전보옥(60 세)씨의 사심없는 협찬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전보옥

씨는 19 년전에 교단을 떠나 국내외의 여러 직장에서 일을 하다 자녀의 대학생활 뒤바라지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아프리카주의 남아공행을 택하게 되였다. 딸이 대학 졸업후 그곳에서 직장을 찾게 되자 그도 그 곳에 정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딸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기업(플라스틱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향행에 문화원에서 노래자랑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솔선으로 문화원 노래교실의 음향설비 기계를 모두 최신식으로 바꾸어 주었을 뿐 아니라 노래 자랑 관련 해당 상품이나 상금을 전부 부담하기로 했는데 평심방식의 개변으로 협찬금으로 기념품을 구입하여 노래자랑에 참여하는 모든이들에게 선물로 증송하였다.

이번 노래자랑 행사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전보옥씨는 "산재 지구에서 민족문화의 발전과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들 제 주머니를 틀어가면서 사비로 활동을 조직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쳐나고 한마음으로 단합된 모습 그리고 고향의 땅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고향분들에게 무엇인가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스스로 떠올랐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고향의 문화사업에 힘을 이바지하겠다고 약속을 거듭하였다. /글: 전창국 특약기자 사진: 강명찬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갖는 민생문제에 초점

로인이 있으면 부양하는 곳이 있고 어린이가 있으면 가르치는 곳이 있으며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곳이 있고 어려운 사람은 도움받을 곳이 있게 한다...

올해 들어 연길시는 인민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민생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일련의 목적성 있는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여러가지 민생실사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시해나가면서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보다 더 충실하고도 보다 더 보장이 있게, 보다 더 지속가능케 했다.

"백성에게는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이 일상적인 '작은 소망' 련결하기 과정에서 많은 로인들이 자녀가 곁에 없어 밥짓기와 식사난 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회구역내에 민선식당을 하나 꾸릴 생각을 하게 되였어요." 연길시 하남가두 백금사회구역 당총지 서기 라춘휘의 소개에 따르면 이 사회구역에는 현재 실제 거주인구가 4,696 명인데 그중 약 4 분의 1 이 60 세 이상 로인들이라고 한다. 로년 대중들의 식사난을 해결해주기 위해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은 적시에 상급 부문에 반영했고 연길시민정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하남가두당사업위원회의 전적인 협력을 얻게 되였다.



올해 3 월, 백금사회구역 민선식당이 정식으로 간판을 걸고 매일 점심마다 뷔페 형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60 세 이하 주민은 1 인당 15 원, 60 세 이상 로인은 단돈 10 원이면 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지난 10 일 점심에 기자 일행이 연길시 백금사회구역 민선식당을 찾았을 때는 아직 식사시간전이였지만 식당에는 이미 '단골'들이 대기중이였다. 민선식당을 찾아 한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점차 로인들의 새로운 생활습관이 되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식당 관리자분들이 아주 책임감이 있는데 매일 저녁마다 미리 이튿날 점심 메뉴를 올려주어 너무 편리합니다. 8가지 료리에 장국 하나가 기본표준입니다." 사회구역 주민이자 이 식당 단골인 왕아주머니(68세)는 기자에게 식당이 로인들의 음식습관을 충분히 배려해주어 식당을 찾는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열정적으로 소개하면서 엄지척을 보였다.

또한 퇴직한 후 밥짓는 게 '일'이였는데 민선식당이 생기고나서부터는 본인처럼 60세 이상의 로인들은 매일 10원이면 여러가지 맛의 각양각색 뷔페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여 너무 편리하다며 왕아주머니는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이 식당은 설립된 후 지금까지 5개 위챗그룹에 부근 주민 1,000여명이 추가되여 루계로 연인원 9,600여명을 접대했다.

사용에 투입되면 12개 학급에 360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연길시제18유치원 건설대상.

민생공정이 해결해준 것은 양로와 식사 문제뿐 아니라 어린이가 있으면 가르치는 곳이 있게 했다.

'유치원 입학난'과 '유치원 학비가 비싼' 문제는 줄곧 민생이 주목하는 초점이다. 지난 10일, 기자는 공원로 북쪽, 와룡거리 서쪽에 위치한 연길시제18유치원 건설대상 현장에서 일군들이 한창 실내 천장을 설치하고 학교 정문을 용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길시학교후근관리중심 부주임 리종호의 소개에 따르면 이 대상은 부지면적이 8,075평방메터이고 건축면적이 8,328평방메터인데 주로 교수청사 1동을 건설하여 12개 학급을 설치해 360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 토목건축공사가 거의 끝나 년말이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연길시 학령전교육 자원배치를 한층 더 최적화하여 학령아동들의 유치원 입학난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리종호는 말했다.

배움에는 교육이 따라가야 한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할뿐 만아니라 더우기는 잘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1990년대 말부터 연길시건공소학교는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는 이 전통 체육 종목을 틀어쥐기 시작했다. 2019년에 이 학교는 전국 청소년 교정 빙설운동 특색학교로 명명되였고 2020년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청소년 교정 빙설운동 특색학교로 명명되였다. 이 학교 기자재실에서 기자는 새로 배치한 빙설운동 설비와 기자재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체육교원인 정걸은 기자에게 새 장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현재 30명 정도의 소학생이 스케이팅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와 훈련복은 그들의 일상적인 빙상훈련과 륙상훈련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빙설운동 설비 기자재 보충배치대상은 총 투자가 15만원이며 그중 길림성 민생대상 지출자금이 5만원인데 전부 스피드 스케이팅 기자재 구입에 쓰였고 길림성체육국에서 기증한 10만원 상당의 스피드 스케이팅 기자재도 받아들여 이러한 기자재들은 이미 전부 전업팀 및 저학년 기초훈련에 운용했다고 덧붙였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연길시건공소학교는 상급 훈련팀에 루계로 200여명의 우수한 인재를 수송해 주, 성, 전국 스케이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학교사무실에 전시되여 있는 명예의 벽이 바로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

"우리는 일련의 다채로운 빙상운동을 전개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스케이팅을 통해 빙설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한편 상급으로 우수한 빙상인재를 선발해 수송했습니다." 체육교원 정걸은 기자에게 이 학교는 장기적으로 빙상훈련을 전개하고 경상적으로 팀을 조직하여 각종 경기에 참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스피드 스케이팅 기능을 끊임없이 제고시켜 학교특색 체육건설을 효과적으로 촉진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스케이팅 인재를 충분히 발굴하고 양성했는바 1997년부터 지금까지 이 학교는 상급 훈련팀에 루계로 200여명의 우수한 인재를 수송했다. 이들은 주, 성, 전국 스케이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학교사무실에 전시되여 있는 명예의 벽이 바로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

교육혜민 품질향상 행동 외에도 문명 쾌적주거 품질향상 행동 역시 백성의 직접적 리익과 관계되는 실제적인 민생대상이다. 연길 로후 '변신' 대상은 더욱 많은 백성들이 안거락업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주택단지의 다니기 힘들던 길도, 차하던 주변환경도, 주차난도 모두 해결되여 지금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주 편하다고 말하는 주민.

연길시 81 주택단지는 1999 년에 건설되였는데 각종 기초시설이 오래전에 이미 다 낡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개조해야 할 내용이 매우 번잡하였다. 2021 년, 이 주택단지는 로후주택 개조 계획에 포함되였는데 개조 내용은 주택단지 수도공급, 배수, 난방, 가스, 전력, 약전기 공사 등 주택단지 관련 기초시설과 계단, 외벽, 지붕 공사 등 가옥 종합정비 공사 등을 포함했다. "주택개조 후 우리 주택단지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도가 밝아졌고 마당이 환해지면서 마치 새집같아요. 이웃지간 분쟁도 많이 적어졌어요." 이 주택단지 1 동에 거주한다는 주민 오씨는 기자에게 과거 주택단지의 다니기 힘들던 길도, 차하던 주변환경도, 주차난도 모두 해결되여 지금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주 편하다고 말했다.

목전 이 대상의 7 개 동 건물에 대한 개조대상이 모두 완공되였고 로후한 주택에 대한 보수, 수도공급 및 전기공급 수송관이 허름한 문제, 락후한 오물배출 시설 등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거주 품질을 향상시켰는바 206 가구의 주민이 혜택을 보았다.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연길시 로후주택 개조공사로 총 100 개 주택단지의 972 동 건물의 주택개조를 완료했습니다."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로후주택개조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로후주택 개조가 완성된 후에도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회구역 등 관련 부문과 련결해 개조후의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을 한층 더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중들의 출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는 기초시설 편민향상 행동을 전개했다. 10 월 20 일, 총투자 240 만원에 두달 남짓 걸린 연길시 의란진 룡연촌 연하교 개조공사가 정식으로 완공되여 순조롭게 통차했다. 세월의 세례를 담은 '근심다리'가 백성들 마음속의 '안심다리'로 변했다.

"여기는 우리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마다 꼭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매번 다리를 건널 때마다 아주 조심스러웠는데 개조후의 연하교가 이렇게 안전해보이니 다시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시민 서선생은 이렇게 말하면서 개조후의 연하교가 튼튼하고 중후하며 다리바닥이 완전히 새로워 졌다면서 량측의 가드레일도 보강을 거쳐 두터워졌는데 현대화 교통운수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어 매우 안심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연길시는 사회최저보장(社会兜底保障) 향상 행동을 적극 전개해 사회보험 보조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기본내용, 실시범위, 운영규정, 정책기준 등을 전면적으로 공시, 사회보험 보조 정책에 대한 선전활동을 널리 펼쳐 대중들이 취업정책에 대한 리해률을 높여줌과 아울러 취업정책 락착 강도를 강화해 조건에 부합되는 취업곤란인원들이 사회보험 보조 우대정책을 응당하고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3,201 명의 취업곤난, 령활취업 인원들을 위해 사회보험 보조를 심사, 통과시켰다.

연길시는 또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을 조직해 방문조사를 진행하여 제로취업 가정성원의 기본상황, 생활현황과 취업수요를 파악했다. 제로취업 가정성원 84 명을 배치해 상응한 공익성 일터에 취업시켰다. 그중 사회구역창구 일터에 74 명을 배치했는데 제로취업 가정의 88.1%를 차지했다. 기타 기관사업단위 일터에 10 명을 배치했는데 제로취업 가정의 11.9%를 차지했다. 나아가 이미 모두 배치를 마쳤다. 목전 연길시 제로취업 가정성원의 취업 원조률은 이미 100%에 달한다. 출처:길림신문



조선족집거구가 형성된 지난 30여년간 산동성 청도에서 조선족문화예술단체는 한떨기의 신선한 진달래와도 같은 존재였다. 청도시에서 펼쳐지는 시민절, 국제백사장절, 문화하향, 치맥절 등 공익행사에서 조선족문화예술단체는 언제나 특별한 존재였고 '조선족문화예술단체가 없으면 행사가 어렵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였다.

아리랑예술단, 진달래예술단, 해안선예술단 등 문화예술단체들은 국내외의 무대에 올라 수차 영광을 떨쳤고 청도시텔레비죤방송국은 물론 산동성텔레비죤방송국의 대형 문예야회에서도 민족예술의 위상을 떨쳤다.

아리랑예술단의 무용 <아리랑>, 진달래예술단의 무용 <축수>, 해안선예술단의 무용 <배 띄워라>, 로교원친목회 무용 <칼춤> 등 예술종목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준프로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년에 들어서 문화예술단체가 우후죽순마냥 나타남에 따라 조선족문화단체에 대한 현지의 반응이 시큰둥해졌다. 조선족무용을 보려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기다리던

이름은 화려하고 공연은 초라하고…

관중들의 모습도 인젠 찾아보기 힘들다.

"또 그 춤이네. 볼게 별로 없어요."

어느 한 대형 행사에서 '행여나'하고 조선족들의 색다른 공연을 기대하고 있던 현지의 관중이 자리를 뜨면서 남긴 말이다.

곡도 그 곡, 무용도 그 무용, 사람과 복장만 바뀌였을 뿐 똑같은 무용을 재탕하는 현실 앞에서 관중들은 인내심을 잃어갔다.

"우리 무용은 진짜 일품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예술단체들이 항상 자신 있게 내뱉는 말이다. 작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결여된 경우가 많아서 항상 자신 있게 자기네 예술단체를 추천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 없고 거의 모두 젊은이들만 있다는둥, 우리 무용은 새롭게 안무한 것이여서 참신하다는 둥… 이들은 자기 소개에 거침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참담하다.

주지하다 싶이 무용은 정체성을 요구한다. 음악에 맞춰 률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눈 빛 하나도 주제를 위해 복무할 수 있어야 하며 완벽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령 10명이 무대에 올랐는데 10명 모두가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손 높이도 다르고 리듬도 타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과연 얼마나 영성할가?

문제는 바로 이런 모습이 현재 비일비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저 예술단은 어데서 왔지요? 왜 저런 분들을 청했는지 모르겠네요."

10여년간 행사에 참가하면서 조선족문화예술을 지켜보았던 유지인사 한분이 짧게 던진 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조선족문화예술이 '정중하게 대접받던 데로부터 푸대접받는 존재'로 변한 그것이다.

"자기들은 돈을 받지 않고 한다면서 재를 뿌리는 현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해진 공연

이 취소됐다면서 어느 한 예술단체의 책임자가 말했다.

약육강식이 아닌 동족상잔이 벌어진 것이다. 대형 행사를 펼치는 주최측의 립장에서는 출연자들에게 출연비를 제공하게 되여있다.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멋진 행사를 펼치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기본비용은 꼭 지불하려고 한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 공연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서 돈을 팔아가면서 예술단을 청하겠는가…

이런 예술단체 '덕분'에 조선족무용은 '렴가제품'으로 전락했다. 혹 출연비를 받는다 해도 예전의 3분의 1 혹은 반토막 났다.

사립예술단체인 것 만큼 돈을 받고 하든 돈을 받지 않고 하든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돈을 받지 않고 돈을 가져다주면서 하면 또 어쩐단 말인가? 오뉴월에 오이를 꺼꾸로 먹어도 제멋이라고 했다.

최근 들어서는 예술단체의 정부적 차원의 '문화하향'이 많아졌다. 사립예술단이 대부분이고 허가증마저 없는 청도조선족문화예술단체에 있어서 '문화하향'은 정부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소중한 경로라고도 할 수 있다. 공연에 참가하고 정부 해당 부문과 교류하다보면 활동장소도 공짜로 제공 받기도 하고 현지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기회도 생기며 활동 령역도 넓혀갈 수 있다. 때문에 거의 모든 예술단체가 정부 해당 부문에 호응하여 일년에 수십차씩 의무공연에 참가한다.

이미 언급했다 싶이 우리의 많은 예술단체의 예술기량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다듬고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할 상황이다.

"스스로도 부끄러워 인젠 무대에 못나서겠습니다."

공연에 참가했던 한 배우가 한 말이다. 일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청도조선족민족문화예술의 이미지는 추락의 날개를 달게 되였다.

그렇다면 청도조선족문화예술은 정녕 환골탈태하고 조혈기능을 갖출 수 없는 걸가?허강일기자

'연변생태된장오덕문화축제''탁월한 우수브랜드상' 수상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안휘성 합비시에서 소집된 2023년 제14기중국축제문화와 관광대회에서 '연변생태된장오덕문화축제'가 영예의 '탁월한 우수브랜드상'을 수여 받았다. 이는 연변에서 처음으로 축제문화 전국상을 받아 안은 것으로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는 같은 축제활동을 련속 10년, 20년. 30년, 40년 진행한 축제들을 선정해 상을 발급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조직하고 진행한 근 3,000여가지 축제들중 150개가 선정되였다.

'연변생태된장오덕문화축제'는 올해까지 19년간 이어온 우수한 축제 브랜드를 인정받아 '탁월한 우수브랜드상'을 받아안게 되였다.

이번에 수상한 축제브랜들에는 청도맥주축제, 운남더홍 따이족 살수축제, 할빈빙설축제, 락양국제목단절, 사천광원 녀아절, 대련금사탄문화절 등 중국에서 유명한 축제들도 있었다. 동북에서는 8개의 축제가 수상했는데 료녕성이 3개, 길림성이 2개, 흑룡강성이 3개였다. 길림성에서는 '장춘빙설축제'와 연변의 '연변생태된장오덕문화축제' 수상의 영예를 받아 안았다.

연변생태문화협회 박용일 회장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연변생태된장오덕문화축제' 를 대표하여 '탁월한 우수브랜드상'상장과 상패를 받았다.

박용일 회장은 '연변생태된장오덕문화축제' 가 이런 영광을 가지게 된데 대하여 리동춘리사장을 비롯한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와 연변생태문화협회 회원들의 지난 19 년동안의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과 갈라 놓을수 없다면서 그들의 시종일관한 로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연변생태문화협회와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의 주도로 2005 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19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연변생태된장오덕문화축제' 는 조선족전통된장산업을 계승하고 보급해나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성급)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 리사장 리동춘은 "19 회를 이어온 '연변생태된장오덕문화축제'의 목적은 시종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건강한 생태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였다. 축제의 내용이 건전하고 건강시대에 알맞게 몸과 정신이 함께 하는 건강축제의 취지가 좋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망의 20 회를 눈앞에 두고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축제내용이 인정을 받았고 상을 수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감수를 터놓았다.

리동춘 리사장은 현재 새공장 입주와 더불어 국가의 고품질발전 전략에 적극적으로 방향을 맞추면서 회사를 혁신형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과 탁월한 우수 브랜드축제 영예에 걸맞게 '연변생태된장오덕문화축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지역의 유명한 축제브랜드로 이어나갈 타산임을 밝혔다. 출처: 길림신문

95 세 어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67 세 딸

8 년째 운신 못하는 로모를 지극정성 보살피고있는 현대판 효녀심청-전영실의 효도이야기

올해 67 세인 전영실의 하루 일과는 8 년째 뇌졸중으로 자리에 누워계시는 95 세 로모 석은옥을 위해 아침부터 영양죽을 끓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어머니의 얼굴과 몸을 닦아드리고 양치를 시킨후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빗겨드린다. 아침 6 시부터는 두시간에 한번씩 여러가지 영양식을 믹서로 갈아서 주사기로 비위관(코에 삽입하여 음식을 식도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관)을 통해 대접한다. 어머니가 뇌졸중때문에 음식을 씹어 삼키는 기능을 상실했기때문이다. 하루에 8 번 이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 또 매일 두번 이상 몸을 주물러드리고 일부러 재미있는 화제거리를 꺼내 어머니가 적적하지 않도록 오손도손 대화도 나눈다. 60 세가 넘은 딸이 90 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어린아이처럼 나풀나풀 춤도 추고 재롱떨면서 익살스레 웃기기도 한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면 올해까지 이미 8 년이 넘도록 자리에 누워만있는 어머니가 여태껏 욕창 한번 생기지 않았고 정신상태도 아주 또렷하다.

연길시 축목국사택에서 살고있는 전영실이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 것은 10 년전인 2014 년부터의 일이다. 다섯 남매가 있지만 큰 언니도 이젠 70 을 넘긴 로인이고 다른 자녀들은 건강과 사업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로모를 모실 형편이 못되였다. 어머니가 둘째딸인 전영실과 함께 있기를 더 원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셔서 불과 이태도 안된 2015 년 4 월 30 일 어머니가 87 세때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될줄이야...

어머니가 80 세를 넘긴 늦은 나이에 뇌졸중을 앓다보니 다시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음에도 전영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동안 어머니는 병세가 위중해져 다섯번이나 병원에 입원하여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갔지만 번마다 전영실의 지극정성으로 기적처럼 호전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오군 했다.

올해초에 95 세 고령인 어머니가 코로나때문에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선을 헤맬때 모두들 로인의 몸이 굳어지기 전에 수의를 입히라고 하였지만 전영실은 절대 포기 할수 없다면서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에게 약을 구해다 드리고 링게르 주사를 놓아드리면서 사경에서 어머니를 지켜냈다. 앓는 동안 어머니는 말도 못했는데 넉달이 지나서야 의식이 회복되여 다시 말도 하고 노래도 할수 있게 되였다. 그제서야 전영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자식으로 생겨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무척 고생하셨지요. 특히 저는 어릴때 사고로 4 년 넘게 앓았는데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다시 걸을수 있게 되여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더욱 잊지 못합니다”전영실의 솔직한 고백이였다.

9 살나던 해, 전영실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되였는데 뼈가 으깨지며 극심한 통증이 덮치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였다. 그번 사고로 전영실은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여버렸다. 용하다는 의사들이라면 어머니는 어린 영실이를 등에 업고 사처로 돌아다녔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때가 아니였고 밀차조차 빌리기 힘든 때였다. 어머니는 영실이를 등에 업고 걷다가 힘들면 내려놓고 잠간 쉬였다가 다시 업고 가면서도 끝끝내 딸에 대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찾아간 곳은 천진시에 있는 어느 큰 골과병원이였다. 의사들은 두가지 치료방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썩어 들어가는 둔부의 뼈를 잘라내고 불수강으로 만든 인조골격을 해넣는 것인데 불구로 될수도 있다는 것이였다. 다른 하나는 영양보충으로 뼈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림상치료를 결부하는 것이였다.

딸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어머니는 두말없이 두번째 치료방안을 선택했다. 그 뒤로 4 년 반 동안 어머니는 춘하추동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 연길종축장의 우유를 받아와서는 닭알, 포도당, 어간유, 칼시움제 등과 함께 끼니마다 영실에게 먹였고 여름에는 꿀, 겨울에는 엿을 달여서 세



동생을 빼놓고 영실에게만 따로 먹이면서 영양보충을 시켰다.

한동안은 하루에 침만 20 여대씩 맞기도 했다. 어머니는 침만 보아도 진저리를 치는 영실이를 옆에서 얼리고 달래주었다. 그때는 아픈 침을 꼬박꼬박 맞게 하는 엄마가 얼마나 밉고 원망스럽던지 몰랐다고 전영실은 말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반년 쯤 지나 검사를 받으니 뼈가 좀씩 자란다는 것이였다. 그렇게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4 년 반 만에 영실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였고 장애가 될 운명을 이겨낼수 있게 되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녀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로 어머니의 위대한 모성애를 칭송한다. 그만큼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은 위대하고 숭고하다. 태여나서부터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았던 영실이는 이래저래 어머니에게 아픈 손가락이였다. 일찍 37 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5 남매를 키운 어머니는 평소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몫까지 사랑을 주면서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모지름을 썼다. 자식들 중에서 가녀린 어머니등에 제일 많이 업혀다닌 것도, 어머니의 애간장을 제일 많이 말리운 것도 둘째딸인 자신이였다고 전영실은 말했다.

전영실은 ‘반포보은'(反哺报恩)이란 고사를 떠올렸다. 새끼까마귀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으로써 낳아서 키워준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게 마땅하다는 도리를 깨우쳐주는 이야기였다.

전영실은 지인들로 부터 억척스런 녀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남편이 출근하던 축목국사택을



분양할때 남편은 남들모두 욕심내는 3 층집을 가지자고 우겼으나 그녀는 1 층에 딸려있는 터전을 바라보고 기어이 1 층을 요구해나섰다. 그리고는 그 황폐하기 그지없던 터전에 매일이 다싶이 붙어있으면서 결국 옥답으로 가꾸어 놓았다. 밭에서 손수 가꾼 갖가지 남새들로 그녀는 어머니에게 건강에 좋은 친환경 유기농남새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옆에서 8 년넘게 어머니의 수발을 드는 전영실을 두고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데 요즘세월에 보기 드문 효녀라며 주위에서 칭찬이 끊기지 않는다. 단 한시각도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으면 안되기에 그녀는 어디를 시름놓고 가지도 못한다. 어머니가 걱정돼 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행여 자리를 비울 일이 있어도 감시카메라와 련결된 핸드폰을 체크하면서 수시로 어머니를 보살핀다.

전영실의 아들, 며느리도 오래동안 운신못하는 할머니를 모시는 어머니가 하도 보기 딱해서 요즘은 다들 로인들을 료양원에 모신다면서 어머니가 힘들텐데 비용은 모두 댈테니 할머니를 료양원에 모시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영실은 단칼에 거절해버렸다. 하긴 전영실 역시 환갑을 넘은 67 세 로인이 되고 남편도 먼저 세상뜨다보니 한해가 다르게 기력이 못해지고 여기저기 아파나서 병원출입이 잦아지니 로모에 대한 수발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래서 전영실은 잠시 어머니를 료양원에 모셔갈가 고민하다가도 어린시절 자신에게 쏟아부었던 어머니의 하해같은 정성을 떠올리면 "이건 아니지" 하면서 저절로 고개가 저어진다고 말했다.

"엄마 등에 업혀서 병원에 다니던 어린시절에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엄마를 내 옆에 오래오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비록 나이는 어렸어도 엄마가 좋고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았고 엄마랑 더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였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때는 더더욱 엄마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3 월 22 일,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 협회에서는 '전영실 효도문화 좌담회'를 특별히 조직하고 전영실이 95 세 로모를 살뜰히 돌보면서 사회의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널리 홍보하였는데 사회적으로 큰 감동과 공명을 불러 일으켰다. 모두들 '효도문화는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금전 만능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전통교육과 효도문화가 점점 소실되여가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륜리도덕중 첫번째로 지켜야 할 도덕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사회적 안정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면 먼저 효도 문화를 널리 제창해야 한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어머니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고 전영실은 말한다

"굳이 엄마의 마음속에 효녀로 남고 싶은 욕심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이 몸을 낳아서 키워주어 고맙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힘 자라는 대로 섬기고 싶을 뿐이지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 걱정으로 로심초사하며 자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환갑이 지난 이 나이에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바라볼 수 있으니 저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95 세 로모를 모시고 있는 67 세 딸 전영실의 솔직한 고백이였다. /길림신문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중국대사관 성원들 조중친선택암농장과 동평양제 1 중학교 참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순안구역 조중친선택암농장과 동평양제 1 중학교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47(1958)년 2 월 19 일 중국의 주은래총리동지와 함께 다녀가신 살림집과 조중친선실을 비롯한 농장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왕아군 특명전권대사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중조 두 나라 로세대 령도자들이 마련해준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동평양제 1 중학교를 찾은 대사관성원들은 학생들이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며 나라의 인재후비들로 준비해가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모택동반,교육방법연구실 등을 돌아보았다.

이어 그들은 학생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고 학교에 교육용설비들을 기증하였다.(끝)

조중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70 돐에 즈음한 연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사이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70 돐에 즈음하여 대외경제성과 문화성에서 마련한 연회가 23 일 옥류관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왕아군 우리 나라 주재 중국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체류중 중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동지,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문성혁동지,외무성 부상 박명호동지,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끝)

중국소식

zhongguoxiaoxi

중미정상회담, 습근평 이런 관건적 문제 강조!



◆ 두가지 선택은 두가지 방향을 대표하고 있는바 이는 인류의 전도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 세계는 백년 동안 없었던 대변국을 겪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은 두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단합과 협력을 강화하여 손 잡고 글로벌도전에 대응하면서 세계 안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로게임사유를 지니고 진영대립을 선동하여 세계로 하여금 동란과 분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두가지 선택은 두가지 방향을 대표하고 있는바 이는 인류의 전도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량자관계로서의 중미관계는 이런 큰 배경하에서 사고하고 계획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을 초월하거나 혹은 대체하려는 계획이 없으며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고 억제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발전은 자체의 론리와 법칙을 갖고 있다. 중국은 한창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식민수탈의 옛길을 걷지 않을 것이고 나라가 강해지면 패권을 잡는 그릇된 길도 가지 않을 것이며 의식형태수출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나라와도 의식형태대항을 하지 않을 것이다.

◆ 함께 중미관계의 다섯개 기둥을 힘써 구축해야 한다.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 이것은 50년의 중미관계의 로정에서 추출해낸 경험이고 또한 력사적으로 대국충돌이 갖다준 계시로서 중국과 미국이 응당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이다. 이번 샌프란시스코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은 마땅히 새로운 청사진을 갖고 함께 중미관계의 다섯개 기둥을 힘써 구축해야 한다.

◆정확한 인지를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중국은 시종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중미관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동시에 중국은 반드시 수호해야 할 리익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으며 반드시 고수해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 량국이 동반자로 되여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바란다.

◆ 이견차이를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해야 한다.

이견차이가 량국 사이를 가로막는 심연이 되게 해서는 안되며 방법을 대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구축해야 한다. 쌍방은 서로의 원칙과 마지노선을 알아야 하며 괴롭히거나 사단을 일으키거나 선을 넘지 말아야 하며 많이 교류하고 대화하고 상의하면서 이견차이와 의외를 랭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호혜협력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많은 분야에서 광범한 공동리익이 있다. 여기에는 경제무역, 농업 등 전통분야도 포괄되고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신흥분야도 포괄된다. 쌍방은 외교, 경제, 금융, 상무, 농업 등 분야에서 회복했거나 또는 구축한 기제를 충분하게 리용하여 마약금지, 사법집법,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 대국의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져야 한다.

인류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국의 협력을 떠날 수 없다. 중국과 미국은 응당 모범을 보여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에 더욱 많은 공공제품들을 제공해야 한다. 쌍방이 제기한 제안은 서로 개방해야 하며 또한 조률과 접목을 하여 합력을 형성할 수 있다.

◆ 인문교류를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

량국간의 직항 항공편을 늘이고 관광협력을 촉진하며 지방교류를 확대하고 교육협력을 강화하여 량국 인민의 왕래와 교류를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 대만문제는 시종일관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중국측은 미국측이 발리섬에서 한 관련된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중시한다. 미국측은 응당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구체적인 행동에 구현하고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지하며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 중국은 결국에는 통일될 것이며 또한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다.

◆중국의 발전과 장대는 내적 론리가 있기에 외부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미국측은 수출관제, 투자심사, 일방적 제재 등 면에서 끊임없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을 취하여 중국의 정당한 리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고품질발전을 억제하는 것이며 중국인민의 발전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중국의 발전과 장대는 내적 론리가 있기에 외부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중국측의 관심사항에 대해 미국측이 엄숙하게 대하고 행동을 취하여 일방적 제재를 취소하여 중국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바란다.

태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중국 남수북조 중선 프로젝트, 루적 물 공급량 600억㎥ 넘어



강소성 사홍(泗洪)현에 위치한 남수북조(南水北調) 동선 1 기 프로젝트 사홍 허브를 지난 5월 12일 드론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지난 2014년 12월 12일 남수북조(南水北調·남부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북부 지역으로 보내는 프로젝트) 중선 프로젝트가 전면 물 공급을 실시한 이후 루적 물 공급량이 600 억㎥(이달 13일 기준)를 넘어섰다. 북경, 천진, 하북성, 하남성 지역의 1억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수혜자다.

중국 남수북조그룹 관계자는 남수북조 중선 프로젝트가 가동된 후 9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과학적 배치로 물 공급 지역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수혜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경 지역에 공급되는 물의 70% 이상, 천진시 주요 지역에 공급되는 물 전체가 남수북조를 통해 류입된다고 설명했다.

남수북조 중선 프로젝트 개통 이후 주변 50여개 하천 및 호수에 루적 94 억㎥가 넘는 물을 공급돼 화북지역 지하수의 종합 관리와 생태환경 회복에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다. 신화통신

3.4분기까지 전국 신규 민영기업 706만 5000호

[북경 11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시장감독관리총국이 14일 발표한 올해 3.4분기까지의 경영주체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나라 경영주체의 내생동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되였다. 2023년 9월말까지 전국에 등록된 민영기업수는 5200만호를 초과하였고 민영기업이 기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92.3%에 달하였다. 3.4분기까지 전국의 신규 민영기업은 706만 5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발전이 더욱 균형을 이루었다. 3.4 분기까지에 동부, 중부, 서부, 동북 4대 지역의 민영기업은 모두 안정 속에서 좋은 발전세를 유지했다. 동부지역의 신규 민영기업은 351 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고 중부지역의 신규 민영기업은 176 만 6000 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서부지역의 신규 민영기업은 149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고 동북지역의 신규 민영기업은 29 만 9000 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민영기업의 산업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였다. 3.4분기까지 1차, 2차, 3차 산업 신규 민영기업은 각각 28만 4000호, 111만 6000호, 566만 5000 호로 3 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률이 80%를 넘었다. 강대한 시장우세에 의거하여 대중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업종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여 숙박음식업, 임대상무봉사업, 도매소매업의 신규 민영기업 성장속도가 각각 40.3%, 23.1%, 17.4%에 달하였다.

'4가지 새 경제형태'가 민영경제 발전의 새로운 우세로 되였다. 3.4분기까지 신규 '4개 새 경제형태' 민영기업이 300 만 4000 호로 같은 기간 신규 기업수의 40%를 차지했는데 그중 '신형 에너지 활동'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률이 가장 빨랐다. 2023 년 9 월말까지 우리 나라 '4개 새 경제형태' 민영기업은 이미 2087만 3000 호를 초과했으며 새 경제, 새 업태는 강력한 발전세를 유지했다.

개체공상업자는 취업을 안정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며 민생에 혜택을 주는 중요한 력량이다. 3.4 분기까지 경제사회가 전면적으로 일상화 운행을 회복하고 제반 정책, 조치가 중첩되여 힘을 발휘하면서 전국 개체공상업자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량과 질이 동시에 향상되였다. 3.4 분기까지 전국의 신규 개체공상업자는 1719만 6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2023 년 9 월말까지 전국에 등록된 개체공상업자는 이미 1억 2200만호에 달해 경영주체 총량의 67.3%를 차지했다. 개체공상업자가 발전 장대해짐에 따라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이미 7 만호가 넘는 개체공상업자가 기업으로 전환, 승격했다.

민생 관련 업종이 회복되였다. 3.4 분기까지 신규 개체공상업자수가 100만호 이상에 달하는 업종은 주로 도매소매, 숙박음식, 농림목어, 주민봉사 업종으로 각각 889 만 5000 호, 251 만 6000 호, 136 만 3000 호, 134 만 1000 호로 집계

되였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문화체육 및 오락업,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의 신규 개체공상업자수 성장속도도 비교적 빨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4%, 53.1%, 41.1% 증가되였다.

산업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였다. 3.4 분기까지 전국의 신규 개체공상업자에서 1 차, 2 차, 3 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률은 각각 7.7%, 4.4%, 87.9%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 7.2%, 12.2%에 달했으며 3 차 산업의 성장률이 가장 빨랐다. 같은 기간, '4 가지 새 경제형태' 개체공상업자수는 657 만 4000 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증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생방송,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경영을 전개하는 개체공상업자의 비률은 올해초 대비 5.7%포인트 높아졌다.

외상투자기업은 국내외 시장을 련계하고 경제의 이중순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2023 년 9 월말까지 전국에 등록된 외상투자기업(자회사 포함)은 68 만 4000 호로 지난해말에 비해 1.5% 증가되였다. 올해 들어 전염병의 영향이 해소되면서 외상투자기업의 신심이 끊임없이 회복되였고 신규 외상투자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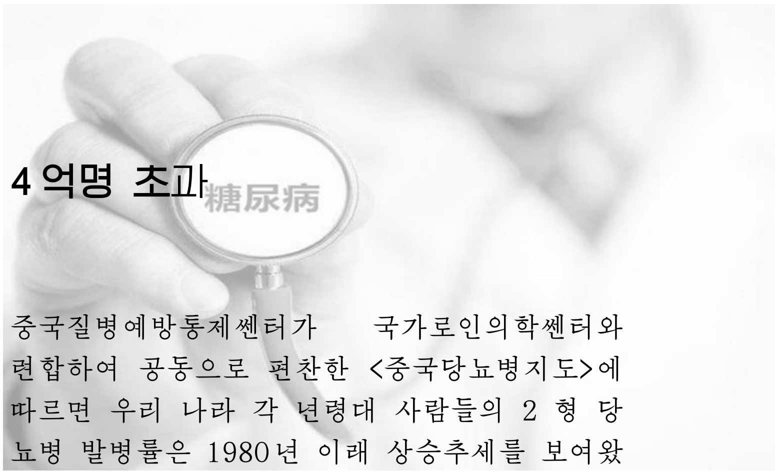
신규 외상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반등하였다. 3.4 분기까지 전국의 신규 외상투자기업은 도합 4 만 6586 호로 전염병 발생 전 같은 시기 수준을 초과했고 6월과 9월의 신규 외상투자기업은 모두 6600 호를 넘어 호전추세가 뚜렷하다.

서비스업의 회복이 비교적 빨라졌다. 3.4 분기까지 전국의 신규 서비스업 외상투자기업은 4 만 3193 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6% 증가했다. 그중 숙박음식, 도매소매, 상무임대,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 등 업종의 신규 외상투자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41.9%, 33.2%, 18.6% 증가되였다. 첨단기술 서비스업의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은 9677 호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외자 원천지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3.4 분기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여전히 신규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자회사 제외)의 외자 원천지 앞자리를 차지했다. 신규 외상투자기업수가 전년 대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원천지로는 로씨야, 브라질,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들이였다. 3.4 분기까지 절강, 광동, 복건 등 3 개 성의 신규 외상투자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2.5%, 41.4%, 29.3% 증가했다.

다음단계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기능역할을 적극 발휘하여 법에 따라 민영기업을 포함한 각종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정확한 지원을 실시하며 개체공상업자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공평경쟁, 경쟁발전에 유리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연변일보

발병률 상승, 우리 나라 당뇨병환자 1.4억명 초과



11 월 14 일은 유엔 당뇨병의 날이다. 세계적 범위에서 당뇨병발병률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당뇨병련맹 데터에 의하면 우리 나라 당뇨병환자는 이미 1.4억명을 초과했는데 그중 2형 당뇨병이 전체 당뇨병환자수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2 형 당뇨병은 중로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유전요소를 제외하면 1 형 당뇨병보다 생활방식, 영양정황 등을 포함해 환경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가 국가로인의학쎈터와 련합하여 공동으로 편찬한 <중국당뇨병지도>에 따르면 우리 나라 각 년령대 사람들의 2 형 당뇨병 발병률은 1980년 이래 상승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로인 2 형 당뇨병환자가 계속 고수준 및 지속적인 빠른 성장을 유지해왔고 남성 2 형 당뇨병 발병률이 녀성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중국외교부 7개국집단의 내정간섭행위를 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이 10 일 기자회견에서 7 개국집단의 내정간섭행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7 개국집단이 외무상회의성명이라는데서 중국이 세계경제를 외곡하고 경제적협박을 일삼는다고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그는 세계의 1 만여개 실체와 개인을 제재명단에 포함시키고 국가의 힘을 동원하여 특정기업들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며 경제무역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하고 세계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안정을 파괴하는것은 바로 몇몇 7 개국집단 성원국이라고 반박하였다.

7 개국집단은 유엔헌장의 근본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준수하고 그 어떤 구실과 미명하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끝)



좋은 소식! 41 가지 약품 가격 평균 58% 인하

6 일 제 9 차수 국가조직 약품집중구매가 상해에서 락찰 예정 결과가 나왔다. 이번 구매에서 41 가지 약품이 성공적으로 구매되였는데 선정된 약품의 평균 가격이 58% 인하되여 년간 182 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9 차 국가조직 약품집중구매는 262 개 기업의 382 개 상품이 입찰에 참여했다. 205 개 기업의 266 개 상품이 락찰 예정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중 200 개 국내 제약회사의 260 가지 상품, 5 개 국제 제약회사의 6 가지 상품[오리지널약(原研药) 1 개와 수입복제약(仿制药) 5 개 포함]이 포함되고 기업의 락찰 예정 비률은 78%이며 품종당 평균 6.5 개 기업이 락찰된다.

이번 구매약품에는 감염, 종양, 심혈관과 뇌혈관질환, 위장질환, 정신질환 및 기타 일반 및
만성질환 약품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약품 및 부족약품과 같은 주요약품들이 포함된다.

다발성 골수종 치료를 위한 레나도민캡슐은 2023 년 5 월 특허만료후 구매에 포함되였는데 캡슐당(25mg) 평균 약 200 원에서 15 원으로 인하되여 매달 3880 원의 약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위장질환치료를 위한 레베라졸경구상방제형,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장용해현탁액 등 국가에서 중점으로 모니터링하는 3 가지 합리적 용약 가격이 크게 인하된다.

부정맥 치료용 아민요오드론주사제, 쇼크구조용 도파민주사제, 옥시토신주사제 등 5 가지 부족약품과 응급구조약품은 '수량제시'구매방식을 통해 기업의 기대를 안정시키고 공급보장과 합리적인 가격인하라는 다원화 목표 균형을 달성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대와 그 해독성》

중국 신화통신사 국가고급두뇌진이 보고서 발표

중국 신화통신사 국가고급두뇌진이 보고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글 일부를 발표한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사상적 근원

《제국》,《맹주》,《권위》 이러한 신념은 미국력사를 관통하고있다.

비록 미국이 정치술어에서 《제국》이라는 글자가 출현하는것을 배척하고있지만 건국초기부터 제국사상은 이미 미국민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박히고 세계군사적패권에로 나아가는 미국의 력사적과정에 계속 드러나고있으며 미국의 정책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있다.

군사팽창과 해외전쟁은 미국력사를 관통하고있으며 그 사상적근원은 일종의 《제국천명론》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서방식민주의자들이 북아메리카대륙에 상륙하면서 생겨났으며 특히 북아메리카가 영국에 속해있던 시기 마사츄세쯔식민지의 첫 총독 죤 윈스러프의 설교에 구현되였다.

1630 년 식민지에 도착하면서 이 이주민지도자는《우리는 최고의 도시가 될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우리를 주시하게 될것이다. 전세계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격언들을 전파시키게 될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말은 240 여년동안 수많은 미국인들속에 널리 전해져 점차 미국민은 《하느님이 선정한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형성하였고 《문명》이라는 명목으로 저들의 눈에 보이는 《뒤떨어진 민족》을 정복하려는 신념을 산생시켰다.

이것은 자기를 구세주로 간주하는 기본신념으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팽창주의를 추구하게 하였으며 처음에는 대륙의 거인이 되려고 하였던 미국이 종당에는 대륙의 모든 인구를 가지게 되였다.

그후 변화발전되여 생겨난 《하늘이 정한 운명론》과 《미국례외론》이라는 두 론조는 오늘까지도 미국의 군사팽창과 군사적패권에 이른바 《합법성》과 《신성성》을 부여해주고있다.

《하늘이 정한 운명론》의 중요내용은 하느님이 미국에 북아메리카대륙 지어 그밖의 지역에서 령토와 세력범위를 확대하고 미국의 제도와 가치관을 전파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것이다.

력사학자들은 미국이 1803 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아나를 사들임으로써 《하늘이 정한 운명론》에 령토팽창과 제국건설에 관한 실질적내용을 더해주었고 1812 년 미영전쟁개시에 앞서 무력에 의거한 팽창을 지지하는 미국내의 전쟁매파들이 처음으로 《하늘

이 정한 운명론》을 일종의 정치사조로 삼은것으로 인정하고있다.

텍사스로부터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군사수단을 사용하여 령토를 확장하고 원주민들을 폭력으로 박해할수 있는 근거와 구실로 되여온 《하늘이 정한 운명론》은 개인리기주의와 인종주의의 특징이 뚜렷하다.

세계력사가 변화발전하고 미국의 국력이 변화됨에 따라 《하늘이 정한 운명론》은 미국이 20 세기이래 세계의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가치관을 수출하며 해외무력간섭을 일삼는 사상적근원의 하나로 되였다.

《미국례외론》은 미국이 인류력사상 유일무이한 국가로서 문명발전의 방향을 대표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례외론은 미국의 제국사상 특히 팽창정책이 보다 강한 추동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미국의 대외정책의 근원들중의 하나로 되게 하였을뿐아니라 미국이 《패권은 과거의 제국들보다 우월하고 문명하다.》고 자부하는데 리용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세계팽창에로 나아가고 세계군사패권을 확립하는 과정에 점차 자기의 리론체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군사패권주의를 추진하는 리론적인 외피로 삼았다.

19 세기말의 미국－에스빠냐전쟁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크게 개변시켰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미국내에서는 해외팽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울려나왔으며 해외팽창을 고취하는 《리론》들도 때맞추어 생겨났다.

그중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이 내놓은 《해상권론》은 당시 팽창주의자인 시어도 루즈벨트의 정치적수요에 부합되였고 미국해군발전의 추진제로 되였다.

《해상권론》은 미국의 군사발전과 패권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빠나마운하를 빼앗고 까리브해를 장악한것으로부터 《그레이트 와이트함대》를 창건하고 원동과 태평양에로 진출한데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계각지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해상요충지들을 장악한데 이르기까지 미국은 점차적으로 세계의 해양을 지배하였다.

미국은 제 2 차 세계대전이후 초대국으로 되였다.

《패권안정론》과 《일극안정론》,《민주주의평화론》은 학계와 정계에서도 자주 관심과 론쟁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패권안정론》은 패권국의 존재가 국제체계의 상대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며 미국의 국력의 상대적인 쇠퇴와 무력사용에 대한 억제는 초대국들이 불안정하게 공존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일극안정론》은 랭전이후의 세계가 미국주도의 안정적인 일극체계이라고 하면서 일극체계가 평화를 가져다주며 오래 지속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외에 《민주주의평화론》도 랭전종식후 미국이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패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리론적기초로 간주되고있다.

1990 년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유고슬라비아공습,2003 년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쟁 그리고 2011 년 리비아정권전복 … 이러한 군사행동들은 모두 미국정부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제도와 가치관》을 지지하고 보급하는것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된다.

사실 이 리론들은 력사와 현실의 검증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리론들은 어떻게 말을 바꾸든지간에 모두 미국의 군사패권적지위와 리익을 비호하고 그에 복무하는 리론이며 그 본질은 전쟁,팽창,간섭 등 미국의 제국사상을 반영하고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무시할수 없는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추동하는 근본요인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도록 추동하는 근본요인을 리익과 전략,국내정치의 3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리익: 자본팽창욕망

미국의 군사적패권이라는 정치적현상은 바로 그것이 의거하는 경제제도 즉 자본주의제도의 산물이며 미국의 패권형성의 자리길은 자본팽창의 자리길과 대체로 일치하다.

미국은 독립후 서쪽과 남쪽으로 령토를 확장하면서 토지와 자원을 략탈하고 광활한 국내시장을 차지한것과 함께 공업화,도시화,농업기계화를 완성함으로써 자본주의강국으로 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몬로주의》의 간판밑에 서반구세력범위를 선포하고는 《제국의 접경지대》이며 대량의 자원이 매장되여있는 《황금의 나라》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

1898년에는 미국－에스빠냐전쟁을 통해 식민지를 재분할하여 태평양과 그 연안의 섬들,대륙에 상업통제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1899년에는《문호개방》정책을 내대고 아시아에서 유럽과 리익쟁탈전을 벌렸다.

그후 미국은 제 1 차 세계대전과 제 2 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의 시장과 경제적명맥을 손에 넣었으며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략자원을 보장하기 위해 원유,광산 등의 자원 특히 에네르기매장량이 풍부한 중동지역을 장악하였다.

몇가지 간단한 실례를 들어보자.

미국은 빠나마독립을 조작하여 빠나마운하개발권과 영구임대권을 빼앗아냈으며 인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란의 모사디크정부를 전복함으로써 미국원유회사들이 중동에서 기업을 확대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쿠웨이트,까타르,바레인 등 중동나라들에 군대를 장기주둔시키고 《만전쟁》과 《이라크전쟁》을 통해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다스리였으며 원유질서를 주도하면서 에네르기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수리아에 군대를 비법적으로 주둔시키고 이 나라의 유전과 천연가스밭,주요곡창지대들을 장악할 기회를 엿보고있으며 함선과 전투기 지어 항공모함으로 호르무즈해협을 순찰하면서 세계의 중요에네르기수송로를 장악하고있다.

미국의 견지에서 보면 패권국가는 반드시 원료와 자본의 원천과 시장을 틀어쥐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생산에서 경쟁우세를 차지하여야 한다.

자원과 시장을 획득하는데서 군사적수단은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된다.

전략: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안전

미국통치자들의 견지에서 볼 때 군사통치권은 그들이 세계의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권력의 증대는 그들의 군사적패권을 《자양》하게 된다.

이전 미국방장관 람스펠드의 상급보좌관인 토마스 바네트의 말에 의하면 2001년부터 미국의 안전구조의 확대는 미국을 하나의 《군사거물》로 만들었다.

세계에서 미국의 주요직능은 《안전을 수출하는것》을 통해 이전에 식민지였던 지역들중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대상,불안정한 대상들을 징계함으로써 세계정치경제를 감독하고 미국의 《핵심》을 보호하는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안전구조는 력사의 많은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과도한 팽창으로 된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국가의 안전이 팽창을 통해서만 수호될수 있으며 위협을 통해서만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킬수 있다고 인정하고있다.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확대하는 과정에는 팽창을 통해서만 안전을 얻을수 있다는 신념이 의연 집요하게 작용하고있다.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실례로 들수 있다.

랭전의 산물인 나토는 원래 랭전의 종식과 함께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패권을 고수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5차례나 되는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그 성원국을 16개로부터 30개로 늘이였다.

나토는 아직도 팽창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팽창계획을 무르익히고있는바 저들의 영향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확대하고 《나토의 세계화》를 추동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미국은 세계군비지출액에서 3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세계 10위권에 있는 기타 나라들의 군비지출액을 합한것보다도 더 많다.

또한 미국과 기타 나토성원국들의 군비지출총액은 세계군비지출액의 55%에 달한다. 만약 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국동맹국들인 오스트랄리아,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군비지출액까지 합하면 61%에 달하게 된다.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추구와 특정한 일방에 대한 정치적배척 그리고 무력을 통한 억제로는 결코 안전틀거리를 마련할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들은 오히려 안전을 파괴하는 요소로 되여 더 큰 불안정을 조성할수 있다.

국내정치: 군사-공업복합체

미국의 군사적패권확장의 배후에는 미국특유의 국내정치시장이 있으며 정치시장안의 매 권력과 세력,리익집단은 미국의 군사적패권행위에 영향을 주고있다.

그중 미국의 통치계층의 한부분인 군사-공업복합체는 미국정책을 틀어쥐고 미국의 《전차체계》를 가동시키고있다.

군사-공업복합체는 미국의 군사조직과 군수공업사이의 련합을 말한다.

오늘까지 발전해온 군사-공업복합체는 주로 4개의 실체 즉 군사안전부문과 방위관련기업, 국회, 학술기관을 포괄하고있다.

오늘날에는 언론기관과 유세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은 방대한 특수리익집단련맹으로서 매 부분이 호상 보충해주는 리익을 가지고있어 서로 의존하고 협조하는 종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있다.

2022년 3월 이전 미국방성 관리 프랭클린 스피니는 자기의 글에서 지난 30여년동안 미국의 군사-공업복합체는 미국의 언론기관, 두뇌집단, 학계, 정보기관과 한짝이 되여왔으며 이 리익사슬은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에서 막대한 리윤을 얻게 될것이라고 밝혔다.(끝)

에스빠냐공민전쟁이 남긴 교훈

1936년 에스빠냐에서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전선이 국회선거에서 승리하여 인민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유럽에서 에스빠냐가 혁명의 발원지로 되는것을 두려워한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 혁명을 압살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파쑈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의 후원밑에 국내 반동들은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무쏠리니는 10여만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많은 비행기를 동원하여 주민지역을 폭격하게 하였다.

히틀러는 에스빠냐를 유럽과 세계정복을 위한 전략적요충지로 만들 목적밑에 비행기와 땅크, 포 등을 에스빠냐반란군에 대주고 수천명의 파쑈장교들을 보내여 반란군을 훈련시켰다. 전쟁과정에 2만 6 000여명의 파쑈도이췰란드군인들이 히틀러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은 놈들의 무장간섭규모를 잘 보여준다.

미국독점체들은 반란군에 막대한 군사재정적지원을 주었다. 미국은 에스빠냐정부에 무기, 비행기, 연료 등을 판매하는것을 금지하였다.

에스빠냐인민은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공민전쟁에 떨쳐나섰다.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54개 나라에서 3만 5 000명의 지원병이 에스빠냐전선으로 달려갔다. 후에 그 수는 무려 100만명에 이르렀다. 지원병들은 에스빠냐인민과 함께 희생적으로 싸웠다.

미국작가 헤밍웨이는 장편소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에서 외국무력간섭자들과 국내 파쑈도당을 반대하여 떨쳐나선 에스빠냐인민들과 국제지원병들의 투쟁을 비교적 진실하게 그렸다. 작가자신도 이 전쟁에 종군기자로 참가하여 진보적인 보도활동을 벌렸다.

전쟁이 간고해지자 내부에서 일부 투항주의적경향이 나타났다.

참모부와 기타 지휘부에 잠입한 투항분자들은 다른 전선에서 작전을 조직함으로써 공산당원들이 주력을 이루는 부대가 반란군의 기본무력을 소멸하지 못하고 손실을 입게 하였다. 투항분자들은 1939년 3월 5일 합법적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자들은《영예로운 강화》담판이라는 구실밑에 배후로부터 타격을 가하고 마드리드성문을 반란군에게 열어주었다. 이리하여 에스빠냐공민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많은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반파쑈투사들의 지원을 받았으나 혁명을 수호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자체의 혁명력량이 튼튼히 마련되지 못한데 있었다.

에스빠냐공민전쟁은 외부의 지원은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자기 힘이 준비되지 못하면 혁명을 보위할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였다.

가자지대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군의 야만적인 살륙만행

1개월동안에 1만여명의 팔레스티나인 살해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사이에 터진 류혈적인 무장분쟁이 1개월째 계속되고있다.

가자지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이래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 1만여개의 폭탄을 투하하였으며 그 량은 2만 5 000t 정도에 달한다.

이것은 1㎢당 약 70t의 폭탄을 떨군것과 같다고 외신들은 전하였다.

11월 6일현재 이스라엘군의 야만적인 살륙만행으로 팔레스티나인사망자수는 1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들중 4 100여명이 어린이이고 2 640여명이 녀성들이다.

또한 2만 5 4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2 350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그중 약 1 300명은 어린이이라고 한다.

유엔아동기금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강화하고있는 가자지대가 어린이들의 무덤으로 화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6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단 몇시간동안에만도 이스라엘군은 19차례의 공격을 단행하여 250여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가자지대는 인간살륙장으로 변하였으며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지금 이스라엘호전분자들은 가자시를 완전포위하였다고 하면서 곧 하마스를 괴멸시키기 위해 시가전에 돌입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1만여명의 시체를 쌓아놓고도 모자라 이 지역을 팔레스티나인들의 완전한 무덤으로 만들려는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의 대량살륙계획에 국제사회가 분노의 치를 떨고있다.

중동사태가 이렇듯 악화되고있는것은 붙는 불에 키질하며 이스라엘을 야수적인 살륙전에로 내몰고있는 미국의 무분별한 책동에 기인된다.

지난 3일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분쟁이 일어난이래 네번째로 이스라엘에 날아들어 살인적인 모의를 하였다. 이어 154기의《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탑재할수 있는 미국의《오하이오》급 유도미싸일잠수함이 중동수역에 기여들어 사태를 더욱 위험한 지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앞서 미국은 미해군 항공모함《제랄드 아르.포드》호를 비롯한 2척의 항공모함과 지원함선들을 지중해동부수역에 파견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지원에 열을 올리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비호와 지원책동은 자유와 독립에 대한 팔레스티나인들의 념원을 여지없이 짓밟고 중동에 대한 패권적지위를 유지해보려는 야망의 뚜렷한 발로이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는 미국이 가자지대에서 감행하는 이스라엘의 범죄만행의 진짜 공모자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군사적,정치적지지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레바논애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흐 총비서는 미국이 가자지대에서의 전쟁을 지휘하고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규탄

을 방해하고있다고 폭로단죄하였다.

그는 미행정부가 가자지대에서의 정화를 가로막고있으며 이번 범죄행위의 전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말하였다.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대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해 운운하면서 가자지대의 참상 즉 병원을 비롯한 민간대상들이 공격을 받고 수천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있으며 평화적주민들이 전면봉쇄속에서 고통을 겪는데 대해 침묵을 지키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에서 이스라엘에는 《자위권》이라는것이 없다,그것은 이스라엘이 강점자이기때문이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가자지대에서의 정화를 실현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징벌할것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벌어지고있다.

뛰르끼예의 이스딴불과 앙까라에서 광범한 군중이 《대학살공모자인 블링컨은 뛰르끼예에서 물러가라!》,《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하도록 바이든이 부추기고있다!》라고 쓴 프랑카드들을 들고 시위를 벌렸다.

미국의 워싱톤에서 수천명이 팔레스티나기발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그들은《바이든,너에게는 숨을 곳이 없다. 너는 대학살명령에 수표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백악관과 가까운 곳까지 행진하였다.

시위자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대통령 바이든을 비난하면서 《너의 손에는 피가 묻었다.》고 웨쳤다.(끝)

세계적으로 적극화되는 자연에네르기개발움직임

생태환경보호에 유리하고 그 자원이 무진장한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적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에네르기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에 가서 자연에네르기가 세계적인 전력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의 약 30%에서 50%로 높아지게 될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흐름에 맞게 많은 나라들에서 자연에네르기리용을 적극 장려하고있다.

수력, 풍력, 태양빛발전설비용량측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는 중국이 이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이 나라의 국가에네르기국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국내자연에네르기발전설비용량은 중국력사상 처음으로 석탄발전설비용량을 릉가하였다.

지열에 의한 에네르기생산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최근 도이췰란드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지열발전소들을 건설하고있다.

이 발전소들은 땅속의 증기와 더운물을 뽑아 리용하는것이 아니라 땅우에서 주입한 물을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지열발전방식은 땅겉면에서 수직방향으로 구멍을 뚫고 땅속에 저장되여있는 증기와 더운물을 뽑아 그것으로 타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할수도 있고 열에네르기를 난방에 리용할수도 있다.

지열발전소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수 있다.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 특히 해상풍력발전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화되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바다밑에 고정시키는 풍력발전설비가 널리 보급되고있지만 발전설비를 바다우에 띄워놓는 띄움식계통이 주목되고있다.

유럽의 어느한 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띄움식해상풍력발전개발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에 의하면 약 8 000㎢의 해역에 설치되는 발전설비들중 띄움식해상풍력발전설비가 거의 60%를 차지하게 된다.

국제에네르기기구는 만약 각국이 에네르기 및 기후와 관련된 공약들을 제때에 성실히 리행한다면 자연에네르기리용분야에서 보다 급속한 발전이 이룩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구의 고위관계자는 자연에네르기에로의 전환이 각국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가져다주고 보다 안전한 에네르기 및 생활환경을 제공해준다고 밝혔다. (끝)

인도 야생 호랑이 3600여마리 추산 전세계 호랑이의 75%



인도에 서식하는 야생 호랑이가 3600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세계 호랑이의 75%에 해당한다고 인도 매체가 밝혔다.

7 월 30 일(현지시간) 일간지 힌두스탄타임스와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 산하 인도야생동물연구소는 전국에 서식하는 호랑이가 3682 마리로 추산된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카메라 관측을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로서 지난 4 월 인도야생동물연구소가 발표한 3167 마리를 크게 뛰여넘은 것이다.

인도야생동물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수치는 호랑이 개체수가 매년 6.1%씩 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지난 4 월 발표 때 호랑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정부의 '보존문화' 덕분에 호랑이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야생 호랑이는 아시아의 중부, 동부, 남부에 서식해왔으나 지난 1 세기 동안 약 95%의 전통적 서식지를 잃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인도의 경우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1947 년 야생 호랑이가 약 4 만마리에 달했다. 이후 수십년 동안 개체수가 급감해 2002 년에는 약 3700 마리에 이르렀다.

2006 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1411 마리를 기록했다가 점차 반등하는 추세이다.

호랑이수 급감 원인으로는 삼림벌채, 밀렵, 서식지 침범 등이 꼽힌다.

인도내 호랑이 개체수 반등은 인도 정부가 최근 20 년동안 '과학적인'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덕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호랑이 서식지에서 마을을 옮기는 등 서식지에 대한 인간의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여 있다고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

국제호랑이포럼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호랑이 수는 2016 년 3890 마리에서 2023 년 현재 5575 마리로 추산된다. 이는 주로 인도와 네팔의 호랑이 수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인도 내의 호랑이 수 추정치는 국제호랑이포럼과 인도 정부가 서로 달라 전세계 호랑이 수 추정치도 상이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들 《을사 5 조약》을 위협공갈로 날조한 일제의 죄악을 폭로

17 일부 중앙신문들은 1905 년 11 월 17 일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 5 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죄악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을사 5 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 비법문서,협잡문서이라고 강조하였다.

《을사 5 조약》은 국가대표자인 고종황제를 강박하고 조선봉건왕조의 대신들을 상대로 공포와 위협을 조장하는 속에서 일제가 강제로 날조하였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많은 무력으로 황궁안팎을 겹겹이 포위한 침략자들은 궁앞에서 군사훈련까지 벌려놓았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11 월 17 일 황궁에서 열린 《조약》문제에 관한 어전회의에서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은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상이 결렬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받은 이또 히로부미는 궁궐로 들어가 정부대신들을 강제로 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

여러 대신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이또는 그들을 로골적으로 위협,강박하였으며 지어 옹고집을 부리면 죽여버리라고 졸개들에게 고아댔다.

이런 강압적방법으로 《조약》이 성립되였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린 일제는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조선》은 《을사 5 조약》처럼 가장 비법적인 방법으로 날조된 《조약》,아무런 효력도 가질수 없는 조약 아닌 《조약》을 법적근거로 내들며 한 나라,한 민족을 식민지노예로 만든 일본침략자들과 같은 날강도의 무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강조하였다.(끝)

《양산도》

우리 인민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민요들가운데는 민요 《양산도》도 있다.

민요 《양산도》는 서도지방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선률이 아름답고 류창하며 풍만한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인민들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민요 《양산도》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들이 전해지고있으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모두 대동강을 노래하고있으며 선률형상에서도 밝고 락천적인 서도지방의 전형적인 음조로 되여있다.

《양산도》라는 제목을 놓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모란봉의 양지바른 기슭에 복숭아나무가 많았는데 그 인연으로부터 볕 양, 산 산, 복숭아 도자를 써서 《양산도》라 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다른 하나의 설은 먼 옛날 대동강의 섬, 릉라도에 예로부터 휘늘어진 버드나무숲이 많았는데 모란봉에서 내려다보면 한여름의 더위를 막기 위해 즐겨 쓰는 양산과 비슷하다고 하여 볕 양, 우산 산, 섬 도자를 써서 릉라도를 일명 양산도라고 하였는데 그로부터 이 민요의 제목을 《양산도》라고 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 설들은 민요의 가사와 곡조를 놓고 대비해보면 전혀 인연이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양산도>라는 노래제목은 양덕과 맹산의 길이라는 뜻인데 이 노래는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대한 자랑의 감정을 담고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음악미학사상에 의하여 민요 《양산도》는 그 제목의 뜻이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지게 되였다.

지난 시기의 민요 《양산도》는 가사형상에서 시대적제한성을 많이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재형상된 민요 《양산도》는 인민들이 주인이 되여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주제로 하면서 로동당시대에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된 조국강산을 노래하고있다.

민요의 가사에서는 대동강기슭에 펼쳐진 릉라도와 모란봉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생동하게 그려보이면서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가사의 1 절에서는 양덕과 맹산으로 흐르는 물이 청류벽으로 감돌아드는 대동강의 아름다운 절경을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2 절과 3 절에서는 아름다운 꽃절경을 펼친 모란봉과 대동강물이 감돌아흐르는 릉라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담아싣고 모란봉과 청류벽, 릉라도를 감돌아흐르는 대동강, 이 강변에 펼쳐진 화창한 봄날의 능수버들에 꾀꼴새와 쌍쌍이 춤추는 나비들을 련관시켜 생동하게 노래한 가사의 세련된 시적형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이 아름다운 감정세계에로 끌려들게 하고있다.

특히 가사에서《양덕 맹산 흐르는 물은 청류벽으로 감돌아든다》, 《능수나 버들엔 꾀꼬리 울고》,《꽃속의 나비는 쌍쌍이 춤이로다》와 같은 형상적인 시구들과 《감돌아》, 《실실이》, 《봄빛》과 같은 시어들을 잘 골라씀으로 하여 더없이 아름다운 대동강의 풍치를 생동하게 형상할수 있게 하였다.

가사에서는 또한 《이 강산 두고서 나는 못가겠네》, 《좋구나 금수라 강산》과 같은 시어들을 통하여 조국의 강, 대동강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사랑의 감정, 끝없는 행복과 기쁨을 잘 보여주고있으며 《에루화》, 《에헤이에》와 같은 조흥구들도 잘 살려씀으로써 민족적정서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하고있다.

가사의 이러한 시적형상은 흥겨운 정서로 차넘치는 선률형상에 의해 더욱 안받침되고있다.

양산도장단의 률동을 타고 흐르는 선률은 서도지방 민요들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는 밝고 락천적이며 흥겨운 정서로 일관되여있다.

첫부분의 선률형상은 대동강과 평양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과 함께 이처럼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려는 열렬한 조국애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선률의 둘째부분에서는 첫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음구에서 시작하여 노래의 정서를 승화시켜주면서 선률의 예술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있다.

조식의 주음에서 시작된 둘째부분의 선률은 마치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물과 같이 순차적으로 상승한 다음 첫부분에서 나타났던 상승과 하강진행을 부단히 반복하면서 노래의 정서를 더욱 승화시켜주고있다.

선률의 마감에서는 옥타브조약으로 정서적고조를 이룬 다음 앞부분의 선률진행을 변형반복하면서 산좋고 물맑은 금수강산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과 긍지를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민요 《양산도》는 생활적이며 소박한 시형상과 밝고 약동적이며 민족적정서가 짙은 선률형상과 잘 밀착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지고있으며 그들의 사상정서적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하루 1분! 매일 1분만 운동해도 몸에 리로워!



健康时报图

일이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사실 매일 1분이면 된다.

최근 저명한 의학잡지 《렌셋》은 한차례 연구를 발부해 운동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런 운동은 1 분만 해도 몸에 유익하다.

매일 1분만 시간을 내면 된다

2023 년 10 월 《렌셋·공공위생》에 발표된 한차례 연구는 중고강도 간헐적 생활방식 체력활동(MV-ILPA)과 사망 및 주요 불량한 심혈관사건(MACE) 위험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짧은 중등강도의 격렬한 간헐적 운동을 1~10 분 하면 건강상에 많은 리로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가속계(7×24 시간)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성인 2.5 만여명 선별하여 평균 7.9 년간 추적조사했다. 분석에 따르면 중고강도의 간헐적 생활방식 체력활동이 매일 1 분 미만인 사람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 매일 1~3 분 동안 중고강도 활동을 하면 사망위험이 34%,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9% 감소했다.

▼ 매일 3~5 분 동안 중고강도 활동을 하면 사망위험이 44%,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8% 감소했다.

▼ 매일 5~10 분 동안 중고강도 활동을 하면 사망위험이 52%,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41% 감소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1분 미만의 중고강도 활동이라도 그중 격렬한 운동 비률이 12%를 초과하면 사망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격렬한 운동 비률이 15%를 초과하면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인민넷

단풍으로 절경을 이룬 약산동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붉은 단풍이 뒤덮인 약산동대는 참으로 절승경개입니다.》

예로부터 그 경치가 하도 아름다와 관서8경의 하나로 손꼽혀온 약산동대,



봄철에 온 산을 연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진달래와 여름의 짙은 록음, 독특한 설경을 펼치는 겨울의 약산동대도 황홀하지만 가을의 약산동대의 경치 또한 뛰여나다.

산발을 물들인 붉은 단풍, 나무우듬지마다에서 들려오는 유정한 산새들의 지저귐, 서늘한 바람을 타고 파도처럼 굼실거리는 숲의 설레임…

바라보면 아름다움에 반하고 들어보면 저도 모르게 깊은 정서에 잠겨든다.

약산동대에서 절승을 이루는 곳은 제일봉, 동대, 학벼루 등이다.

제일봉은 약산동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좋은 전망대로 된다.

마치 농립모를 엎어놓은듯 우뚝 솟은 제일봉에 오르면 약산동대를 감돌아흐르는 구룡강과 멀리 조선서해로 유유히 흐르는 청천강, 대령강이 보이며 동쪽으로 멀리는 평안북도에서도 이름난 룡문산의 웅장한 자태가 아득히 보인다.

발밑으로는 옛성터로 둘러싸인 녕변군 읍이 한눈에 안겨오고 남서쪽으로는 안주, 박천일대의 기름진 들판이 그림처럼 펼쳐져있다.

제일봉과 잇닿은 동대에는 거북바위를 비롯하여 류달리 희고 정가로운 바위들이 많이 드러나있다.

그가운데서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것은 거북바위이다. 이 바위우에는 두마리의 거부기가 나란히 놓인듯한 돌들이 있다.

학벼루는 약산동대 북쪽끝에 절벽을 사이에 두고 솟은 바위봉우리로서 기암절벽을 자랑하는 명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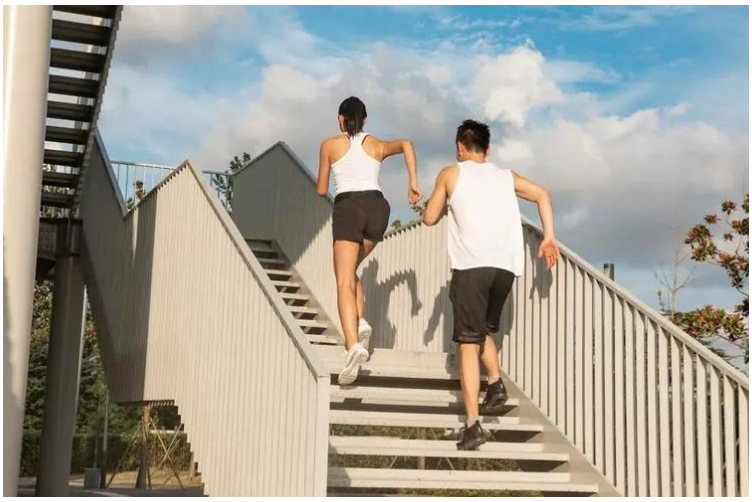
약산에는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재능과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 옛 건물로서 조선봉건왕조때 세워진 천주사, 고려때 처음 세워진 서운사가 있다.

또한 주변에는 련못가운데 세운 륙승정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투쟁이야기가 깃든 철옹성지와 북수구문터, 남문 등 고적들이 있어 명승지의 풍치를 더 돋구어준다.

이렇듯 풍치수려함을 자랑하는 약산동대의 절경을 어찌 단순히 자연의 덕이라고만 하랴.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속에 수많은 명소들이 특색있게 꾸려지고 탐승도로들이 시원하게 쭉쭉 뻗어가 인민을 위한 명승지인 약산동대의 풍치를 자랑하고있다.

이 땅의 아름답고 훌륭한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을 약산동대는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것이다.



매일 5층 계단 오르면 심장병위험 20% 감소

미국 듀란대학 과학자들은 《죽상동맥경화증잡지》 최신호에 발표한 론문을 통해 그들은 영국의 40 여만명 이상의 성인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흡연력 및 그들의 생활습관과 같은 가족력, 유전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데터를 수집하고 참가자들에 대해 12 년 반의 추적관찰을 진행했다고 했다. 분석에 따르면 매일 5 층 계단을 오르는 것이 심혈관질환 위험을 20%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매일 10000 보를 걷는 것보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심혈관건강에 더욱 효과적이였다고 밝혔다. 이외 연구에서는 또 매일 계단을 오르지 않는 참여자가 심혈관질병에 걸릴 위험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에서는 매일 계단을 오르면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을 낮추고 혈압을 낮추며 균형과 골격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발견은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인의 주요조치로써 계단을 오르는 것이 잠재적 우세가 있음을 강조한다. 단시간에 고강도로 계단을 오르는 것은 심페건강과 지질상태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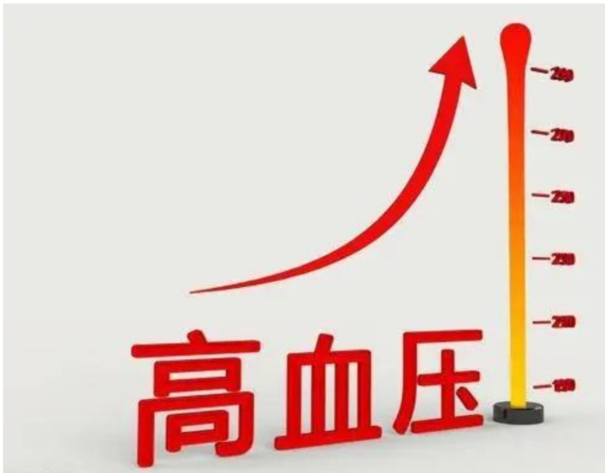
하지만 연구원들은 매일 계단을 더 많이 오르는 것은 좋지만 이런 운동에 익숙하지 않다면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자신이 고혈압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 5가지 흔한 ‘고혈압신호’

<중국 심혈관건강 및 질병보고 2022>에 따르면 중국의 고혈압 환자수는 2 억 4500 만명이지만 고혈압 환자의 인식률은 51.6%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고혈압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고혈압을 로인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주민 영양 및 만성질환 현황보고(2020 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18 세 이상 주민의 고혈압 유병률은 27.5%이며 그중 18~44 세, 45~59 세, 60 세 이상 주민의 고혈압 유병률은 각각 13.3%, 37.8%, 59.2%이다.



아래 5 가지 흔한 증상은 모두 고혈압의 징후일 수 있다.

1.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난다

고혈압의 가장 흔한 증상중 하나로 어떤 사람은 지속적이고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데 갑자

기 자세를 바꿀 때(례를 들어 쪼그려 앉거나 일어설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2. 쉽게 피곤해진다

고혈압은 심장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에 저산소증을 유발하기에 쉽게 지치고 피곤해진다.

3. 두근거림과 불면증

고혈압 환자는 두근거림과 불면증이 더 흔하며 불면증은 대부분 잠이 잘 오지 않고 일찍 깨며 잠을 잘 못 자고 악몽을 꾸기 쉬우며 자주 놀라서 깬다.

4. 사지 저림

고혈압환자는 때때로 사지가 저릴 수 있으며 주로 손가락, 발가락 및 피부에 통증, 근육 긴장 및 저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일부 환자는 종종 손가락이 유연하지 않다고 느낀다.

5. 기억력 저하

장기간의 고혈압은 뇌동맥을 경화시켜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혈압을 발견하는 것과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느낌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느낌상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고혈압 환자는 1 일 1 회 아침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으며 50 세 건강한 사람의 경우 매년 신체검사에서 혈압을 측정하거나 3 개월에 1 회 측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비닐봉지에 포장한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평소에 음식을 포장할 때 당신은 비닐봉지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도시락을 사용하는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포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비닐봉지에 포장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롭지는 않을가?

비닐은 우리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칠가?

1.여러가지 독소 함유

일반적으로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비닐제품은 대부분 폴리스티렌의 이량체와 삼량체로고온의 식품을 넣으면 고온에서 10 가지 이상의 독성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독성물질은 식품에 침투하여 사람의 간과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의 내분비를 방해하여 생육능력저하 및 남성의 녀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

2.담결석을 일으키기 쉬워

부적격 플라스틱도시락과 비닐봉지에는 주로 공업용 탄산칼시움과 파라핀이 포함되여있다. 탄산칼시움은 변비, 담결석 또는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파라핀이 인체에 장기간 축적되면 설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3.발암위험 증가

채색비닐봉지는 재활용 비닐봉지에 속하고 사용되는 착색제는 일반적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과 접촉한 후 식품으로 옮겨져 만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벤조피렌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일종으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발암효과가 강하여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발암물질의 일종(인체에 발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물질)으로 지정했다.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할 수 있을가?

당연히 안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PE) 재질로 고온에서 가열시 쉽게 녹는다. 전자레인지의 가열효과는 비닐봉지에 직접 침투하지만 음식과 비닐봉지는 열을 서로 전달하여 비닐봉지가 녹고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전자화페의 우월성

전자화페란 정보산업기술수단들을 리용하여 류통할 수 있게 만든 화페를 말한다. 이것은 일정한 규격의 특수종이나 얇은 수지우에 자성물질을 도포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사용자의 정보자료, 화페가치 등)를 기록하여 넣은 특수한 화페이다.

전자화페에는 모든 자료들이 전자기적방법에 의하여 수자식신호형태로 기록되여있으며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수감할수 있게 되여있다. 또한 화페의 위조, 비법사용 등을 막기 위한 일련의 기술적 대책들이 세워져있다.

전자화페는 우선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해준다. 전자화페는 간편할뿐 아니라 비법사용에 대처한 방지대책이 세워져있다.

전자화페는 또한 많은 자원을 절약하게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화페는 그 용도와 기능에 따라서 전자현금표와 전자신용장의 형태로 리용되고있다. 전자화페는 예금, 출금 등과 관련한 자료의 입력이나 처리를 자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함으로써 은행업무와 상업봉사의 현대화를 실현하게 할뿐 아니라 사회의 정보화를 다그치고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편리를 도모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1월의 절기와 민속



11 월의 절기에는 립동과소설이 있다.립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를 뜻하며 소설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이르는말이다.이 시기 우리 선조들의 식생활풍습에서 중요한것은 김치담그기와다음해 봄에 가서 장을 담그는데 필요한 메주를 쑤는것이였다.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김장은 반량식이라고 하면서 김치담그는 일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거기에 넣는 재료나 만드는 방법은 지방마다 각이하였다.김장철이면 통배추김치와 함께 동치미, 보쌈김치, 갓김치를 비롯하여 지방마다 맛과 향기가 독특한 여러가지김치를 담그었다.김치는 여러 가정의 주부들이 모여 한집씩 돌아가면서 담그어주었는데 새로 담근 김치를 이웃들에게 먼저맛보이는것을 도덕으로 여기였다.다음해 봄에 가서 장을담그는데 필요한 메주를 쑤는것도 우리 선조들속에서 대대로 전해져오는 오랜 풍습이였다.또한 이 시기 문창호지를 새로 바르고구들을 손질하며 외양간을 고쳐짓는 등겨울나이준비도 착실하게 하였는데 이러한풍습들에는 깨끗한것을 좋아하고 깐지면서도 근면한 우리 민족의 생활기풍이 반영되여있다.이 시기 진행한 민속놀이들은 추운 날씨조건에 맞는 윷놀이와 바둑, 장기, 칠교놀이 등 방안에서하는 유희오락과 어린이들이 즐겨한 연띄우기, 제기차기 등이였다.올해의 립동은 11 월 8 일,소설은 11 월 22 일이다.